



www.kapcq.org

종려주일
성례예배
2017.4.9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2017.4.14

miracle EASTER CAN TATA

부활절 칸타타
기적
2017.4.16

부활절 새벽
촛불예배
2017.4.16

아가페
목상

전도 vs 도전

#삶 #예배 #그리스도인

전도는 도전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도전...
주님 사랑한다면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월간 아가페 제397호 · 2017년 4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718) 358-7789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퀸즈장로교회

4월 전도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 爱加比 · Агапэ

특집 | 전도의 달

내가 품은 태신자 /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I'm So Sorry, Joey! / 信心大家庭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지이다

제 30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매일 스케치

아름다운 로비 공사

우리 하브루타 할까요?

지식과 지혜가 숨쉬는 공간, 요셉도서관

부흥! 중국어 예배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한 2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노방전도 / 새가족학교 간증

은퇴한 고국환 장로 / 이근우 장로의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정진규 집사

미리 보는 부활절 칸타타 "기적"

2017 4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길은 여기에

요즘은 네비게이션 없이 다니는 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말로 그림으로 잘 안내해 줍니다.
 그 네비게이션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하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너무 많다보니 어떤 길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닙니다.
 일본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길은 여기에”라는 자전적 소설을 통해
 길은 하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나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와우, 영원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니 춤추며 가야겠습니다.



‘Remnant’ (남은자) 구약에서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았던 칠천명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칠천명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 칠천명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 3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Remnant’라는 주제로, 본 교회 양순관 및 체육관에서 있었다. 필라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퀸즈장로교회 청년대학부 리더들 60여명이 함께 한 이번 집회는 양일간에 걸쳐 찬양과 기도, 예배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둘째 날인 18일(토)에는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전도 퍼포먼스, 플래시몹을 연출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1:1 전도에 나섰다. 비록 이날 눈,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 쌀쌀한 날씨를 보였지만 청년들의 퍼포먼스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센트럴파크에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지켜보면서 관심을 보였고, 1:1 전도를 통해 진지하게 청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하였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연합을 이루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진행한 이런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글 이숙규 집사 / 사진 이동훈 집사]

The Way is Here

These days, there is almost no one who drives without the help of GPS navigation. Our GPS navigation guides us to our destination through the use of visual and audio cues. Oftentimes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get to a destination. Thankfully, our GPS is also able to adapt to differing traffic situations, changing circumstances, and reroute itself accordingly. Though we may not be aware of the multitude of alternative routes available, our GPS knows, and is often able to calculate the most efficient route to a destination.

However, for the way to eternity, there are no alternative routes. Japanese novelist Miura Ayako wrote in her autobiographical novel, *The Way is Here* (Italics), that there is only one way. Indeed, there is only way to eternity and no others.

There's an old praise song in which the lyrics say, "A blind man shouted, 'tell me where is the way!' Jesus answered the blind man,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Come to me!'"

This Jesus who confidently said, "come to me," is the only way to eternity. Isn't it amazing, that we have already found the way to eternity! Friends, let us walk this path, and go this way towards eternity with great joy, gladness, and dancing!

路在这里

现今时代，几乎看不到没有导航的车辆了。它用语言和画面来引导你到目的地。导航知道通向目的地的路，不仅仅只有一条，它会通过路况而随处引导你，但是有时候路线太多很难选择。

通往永生的道路也不像导航有几条路线。日本一位女装设计师三浦绫子通过自传小说“路在这里”，告诉我们路只有一条。是的，走向永恒的通道也是只有一条。

曾经唱过的一首诗歌中，一位盲人呐喊道：“路在哪里，告诉我”。耶稣回答他说：“我就是道路 我就是真理 我就是生命 跟随我吧”

“跟随我吧”耶稣毫无掩饰地说是因为唯有他才是通往永生的唯一道路。哇，既然找到了永生的路，让我们一路高歌猛进吧。

Дорога здесь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машин без навигации. Они привозят нас к правильной цели на карте и голосом. Навигация сейчас, знает не одну дорогу, туда куда нам надо. Если надо, мы выбираем из многих дорог разные. Но иногда выбор такой большой, что мы не знаем какой лучше.

В вечность дорог не много, она одна. Современный японский писатель Миура Яко в своей книге "Дорога здесь" пишет о том, что дорога только одна.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Дорога в вечность, только одна.

В старой христианской песне есть такие слова: Один слепец на дороге просил: "Где наша дорога, что бы Ты нас водил". Иисус отвечал тогда ему: "Я есть дорога. Я есть истина. Я есть и жизнь. Приходи ко Мне". Иисус говорит нам сегодня "Придите ко Мне". Только Иисус единственный путь ведущий нас к вечности. Вау, мы нашли путь к вечности, пойдём весело по этому пути.

아가페 제397호 2017.4

- 1 신앙시론 | 길은 여기에 김성국 목사
- 5 퀸장가족이 즐겨 부르는 찬송 | 나같은 죄인 살리신 (305 장) 존 뉴턴
- 6 2016년 2월,3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편집부

4월 전도의 달 특집

- 8 전도성화 | 와서 보라 박민아 청년
- 퀸장가족 |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Gabriella
- 9 | A 10-Year Prayer Peter Yoo
- 10 전도간증 | 주일학교를 통한 전도의 지혜 배혜리 집사
- | 내 자녀의 구원, 하나님의 두 손 꼭 잡고!!! 류선영 집사
- 11 |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가족(信心大家庭) 马媛媛姊妹
- 12 태신자 | I'm So Sorry, Joey! Lin Chen
- | 내가 품은 태신자 박상용 집사
- 13 | 썩자를 위한 나의 기도 김현우 집사
- | 나의 친구, 나의 태신자 임동진 집사
- 14 제 30 회 사순절 서원 특별 새벽기도회 | 매일 스케치 이숙규 권사
- 17 시니어를 위한 사회복지 세미나 | 뉴욕시와 정부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 조성순 집사
- 18 본당 LOBBY 공사 | 교회의 얼굴을 새롭게 고국환 장로
- 19 | 시원하고 넓게 트인 공간으로 - 누리건설 이상준 대표 인터뷰 편집부
- 20 감동인터뷰 | 이신은 목사 - 33년 섬겨온 퀸장, 구석 구석 내 마음에 정민영 집사
- 21 제54기 전도폭발훈련 | 복음을 위탁받은 증거인이 되자 편집부
- 22 고국환 은퇴장로 |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고국환 장로
- |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요! 임순미 집사
- 23 이근우 은퇴장로 | 나의 삶,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퀸즈장로교회 이근우 장로
- | 나의 아버지와 퀸즈장로교회 이상협 목사
- 24 QPEM | NEWS 편집부
- 25 | Recapturing the Gospel in the Age of Millennialism Pastor Kiwi Jin

부흥! 중국어 예배부 특집

- 26 11355에 부흥의 불길아... 손명금 집사
- 27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중국어예배부 陈玉捷传道
- 28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황해옥 전도사
- 29 노방전도 |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何秀萍执事
- 31 노방전도 |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马佳姊妹
- 32 새가족 학교 졸업 간증 戴美佳姊妹 / 黄玲迪姊妹
- 33 林顺德姊妹 / 项漪姐妹
- 34 QPLRM | NAVRUZ: New Year According to The Natural Calendar 송요한 목사
- 35 우리 하브루타 할까요? |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 허경문 목사님과의 간담회를 갖고 홍한나 권사
- 36 초등부 | 겨울수련회 스케치 양성국 교사
- 37 | 겨울수련회 간증 Christina Rekas / Daniel Anbinder
- 재정칼럼 |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정훈 집사
- 38 장학위원회 | 설립 43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 채현주 권사
- 39 | 에세이 · 감사의 글 심오섭 청년 / 김호중 학생
- 40 성인대학 | 개강예배 편집부
- 41 예수님의 현신을 닮아가는 퀸장의 현신 예배 편집부
- 42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정진규 집사 -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소유영 전도사
- 43 우리는 퀸장 가족입니다 편집부
- 44 부활절 칸타타 '기적' | 준비현장 스케치 조성순 집사
- 45 요셉 도서관 | 지식과 지혜가 숨쉬는 보배로운 공간-조제인 집사 인터뷰 정혜경 권사
- 46 선교비전의 열정이 더 뜨거워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이숙규 집사 / 황현희 청년
- 47 2017년 2월 새가족 안내 / 이달의 레시피 - 서규일 권사 편집부

주여, 내가 여기 있다!



2017 여선교회 연합 수련회

강사: 이풍삼 목사 (한인동산교회 담임)
 일시: 4월11일(화)-12일(수)
 장소: 퀸즈장로교회 양순관
 접수: 교구장/선교회 회장단
 문의: 함미희 전도사
 황해옥 전도사

- 퀸장가족이 즐겨 부르는 찬송 - “나같은 죄인 살리신 (305 장)”

우리 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은 무엇일까?
 지난 대심방 기간동안 수고하신 각 교구장 전도사님들을 통해 알아본
 심방 '인기찬송' 1위는 찬송가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였다.
 그 다음으로 338장 “내주를 가까이”, 438장 “내영혼이 은총입어”,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순으로 인기순위가 나타났다.

305 나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 405)



부흥으로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잃었 던 생명 찾 았 고 광명을 얻었네
 나 처 음 믿 은 그 시 간 귀 하고 귀 하 다
 또 나 를 장 차 본 향 에 인도 해 주 시 리
 해 처 럼 밝 게 살 면 서 주 찬 양 하 리 라 아 멘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는 존 뉴턴의 자전적 삶을 가사화한 것이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모친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 했으나, 그가 겨우 6세였을 때 모친은 결핵으로 사망한다. 그 후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몇 년 동안은 사이가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 자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선원 학교에 한동안 다니게 된다. 11살 때부터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도제로 배를 탔으며, 여러 곳을 다녔다. 특히 그는 흑인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무역에 종사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족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수송선의 위생상태가 열악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 탈수증,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세일 때 전기를 맞이한다.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 그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된다. 모친이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였어도, 이전까지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귀선한다. 그는 이날을 제 2의 탄생일로 가로새긴다.

그 후 6년간 노예무역을 계속하지만,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했다고 한다.

1755년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하였고, 면학에 매진해 성공회 사제가 된다. 1772년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나같은 죄인 살리신)”를 썼다. 이 곡은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하여 준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소통하는 다민족교회

한마디씩 배워요 ^^

축복합니다	Chukbbokhamnida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a:d bles ju:	갓 블레스 유
祝福你	zhùfú nǐ	추우푸우니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вас	Bog blagoslovit vas	보그 블라고슬로빗 바스

2017년 2월 19일

에베소서 1:15-19

멈출 수 없는 감사로 기도하라



바울의 기도에 “감사를 그치지 않는 것”(엡 1:16, 살전 1:2, 딤후 1:3) 기도의 이 두 요소를 살펴보자.

1. 감사로 기도하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엡 1:15-16) 감사 기도하였다. 또한 다니엘은 어려운 소식에도 감사 기도하였다(단 6:10).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있으며(롬 8:28), 이 가운데 드러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낳는다. 위대한 기적은 감사기도의 열매이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 앞에 오직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놓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림(요 11:41,43)으로 기적을 이루셨다.

진정한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 형식은 감사기도를 표방할 뿐, 교만함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감사 기도하는 것(눅 18:10-11)과 마음에 불평을 갖고 드리는 것(은 2:9, 은 4:1-2a)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도리어 책망하신다(은 4:7).

2. 끊임없이 기도하라

진정한 기도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 끊임없이 탄원했던 과부의 비유를 통해 끊임없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눅 18:7-8). 이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진다.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을 때와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을 연 것은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의 일곱 번, 끊임없는 기도였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용사가 아닌 겁쟁이로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에 휩싸인 무력한 자로 몰락하였다.

불굴의 기도를 갖고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기 원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엡 1:15-19)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5-19)”

매일 매일 능력과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나는 능력이고 미래는 소망이고 현실을 초월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미 이루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차원이 다른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1절)

2017년 2월 26일

에베소서 1:20-23

그리스도, 교회, 만물



본문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만물의 관계 두 가지를 살펴보자.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일부를 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게 하셨다(엡 1:20,골 2:13a).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성도 각자의 개성은 있으나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지 않는 생명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속하여 다른 형제자매들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고 자기의 충만으로 누리고 산다(엡 1:23, 골 2:9-10a). 충만한 자는 마귀의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는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은 육체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충만이 무엇인지 보았다(요 1:14). 교회가 그 충만을 보아야 함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와 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알고 믿어 그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함을 가르친다(엡 4:13).

진정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보여주셨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진리가 죄를 들추어내면, 은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2. 교회는 만물의 왕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정복하시고 그 발아래 두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그 발아래 두었다(엡 1:21-22).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왕이 되었다. 성경은 교회를 분명하게 왕으로 부른다(벧전 2:9,딤후 2:11,딤후 2:12a,계 20:6b).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왕이지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세상의 종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골 2:15). 교회도 세상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방식인 십자가를 가지고 이겨야 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등 전통이나 세상적인 방법의 다른 방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아니다(골 2:8, 삼상 17:37b-39).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는 초라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급자의 이미지를 갖고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는 풍성한 공동체이다.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하며, 각자의 직업과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 공의가 흐르게 변화시켜야 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즐거움이 넘치게 해야 한다(겔 47:5, 8-9).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43주년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감사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역사를 또 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를 보이며
세상의 왕인 우리 교회는

2017년 3월 12일

에베소서 2:11-18

둘에서 한 새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둘을 가지고 한 새사람을 지으셨다(엡 2:15b).

1. 둘은 누구인가?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엡 2:11-12)이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족속이요, 어려서부터 할례도 받았고, 율법대로 사는 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더러운 개처럼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엡 2:14b) 두고 서로를 향한 미움의 가지, 편견의 가지, 비판의 가지, 고집의 가지, 종교의 가지, 전통의 가지, 문화의 가지 등이 솟아 있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게 하였다.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담이 생겼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운동주 시인 “길”).

2. 둘이 어떻게 한 새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실행하시어 이루셨다(엡 2:13-16).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는 첫 유월절에 죽음의 천사는 그 집에 발려진 피를 보고 넘어 갔다(출 12:13). 모든 자는 죄를 지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는 이미 죽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유월절에서는 어린양의 고기를 가족, 이웃, 타국인과 같이 먹으며(출 12:19, 48a) 은혜와 감격을 함께 하였다. 이 비전을 우리교회의 다민족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이루어 나가야 한다.

3. 한 새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서로 평안의 삶 뿐 아니라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엡 2:17-18). 내 내면이, 가족이, 부서가, 구역과 교회가 한 새사람이 되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하며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관계 모두를 새롭게 하였다.



-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소명과 가진 것으로 세상을 채우고 바꾸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만물의 왕으로 힘 있게 살아가길 축원한다.

2017년 3월 5일

에베소서 2:1-10

죽음에서 하늘로



부활은 세 시제가 있다. 2000년 전 과거의 부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미래의 부활,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현재 체험하는 부활 능력의 현재의 부활이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엡 2:2-3).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에덴에서부터 탐욕의 이야기로 가득 차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 다니다 모두가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엡 2:2-3)을 살리셨다(엡 2:1).

그러나 죽었고 진노를 받아야할 자들이 갑자기 공허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엡 2:4)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엡 2:5-6).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KJB)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이 모든 것을 없애주시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는 구절이다. 놀라운 반전이 벌어진 사이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창 50:20). 스올, 지옥에 갈 자를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다(시 49:14-15).

이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공허이 흘러넘치시는 분이 다(엡 2:4).

하나님은 큰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공허이 여기시는 마음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신다.

하늘에 앉아 있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공허로 죽었던 자들을 하늘로 옮기신 이유는 더 이상 욕심을 좇아 사는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는 것이다(엡 2:7-10).

- 1) 하나님을 높여라
- 2) 자기를 낮추라
- 3) 세상을 바꾸라

죽음에서 살아나 하늘에 앉은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선, 현재의 부활을 드러내라.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
공허이 많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라.
겸손 하라. 세상을 바꾸라.

특집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다. (요한복음 1장 41-51)



그림 박민아 청년

I believe if you are called Christian, you must show the light of Christ unto others. How is the church able to let the lost know the existence of God's love? Are you a child of God? God doesn't deny anyone that comes to Him. So, I came to this church to seek God first, even if there was no deep friendship with people.

If I look at myself now, I have grown spiritually but still have a lot to go. I don't know the Bible or have many knowledge of Christianity. But the main thing is that I accepted Jesus Christ as Lord and I will learn as I go.

Even though I'm sick & lonely, I have the peace of the Lord so therefore I feel great.

Wednesday night prayers I look forward to every week because it energizes me spiritually. Also, this Wednesday night prayer was canceled and I felt disappointed. However, as you know, one of our member's father passed away and the prayer night resumed. So I believe it was Jesus saying "Don't cancel the prayer night" and also to mourn for the loss of a father together as a congregation.

My heart is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to show the love of Jesus Christ. **I want to spend my time at this church wisely for a purpose.**

If God made you come to this church, you have to show the people we need each other. I believe in my heart the reason I am here is because God called me. I could have gone to many other churches around here, possibly even more comfortable. But God called me to this church to show the love I have for the community.

But now, I am happy God has sent church members into my life. I feel connected as a family. We all learn from each other. I see this church as a beautiful place and I am very grateful.

Do you feel as if your not loved here? Understand that no one is perfect. You also have to show the love and not just waiting for one to give it. You have to give back.

Do you show the love of Christ to others? I believe the church needs to acknowledge people. Do not be afraid to be connected. You praise the Lord and you are also with other fellow members. If there is no light to reach them, they will not see us as children of God.

I HAVE GRACE IN MY LIFE, AND THAT'S ALL I NEED NO MATTER WHAT.

안녕하세요 저는 가브리엘라 입니다. 1968년에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기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5년째 퀸즈장로교회의 바자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지난해 바자회때 파킹장에서 홍조나단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듣고 싶은지를 물어보시자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기도했고 그는 저를 교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도할때 저는 무언가 다른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주일부터 바로 교회로 나왔고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QPEM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좋았지만 처음에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듯한 느낌에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하나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권장가족”



Gabriella(QPEM)

Hello, my name is Gabriella. I came to this country in 1968 from Hungary. It was a different time then now. I could not speak the language and did not attend church because of this and so I could not be connected to the preaching of the church.

I been coming to the bazaar at this church for the past 5 years and last year at the bazaar, Deacon Jonathan approached me at the parking lot and asked me if I wanted to hear the gospel. I said “Yes”. We prayed together and he invited me to the church. As we prayed, I felt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like the Holy Spirit over me. Right that Sunday, I came to the church and been here ever since.

I started to come to QPEM, loved the service but I felt like an outsider at first. It was not comfortable because the first moments I felt as if there was no acceptance. However, I came to seek the LORD first before anything. Now I know that God loves me & it doesn't bother me.

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알릴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어느 한사람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깊은 교제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금 저자신을 보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비록 제가 아프고 외롭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에 저는 기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기도모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은 영적으로 저에게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기도모임이 취소되어서 저는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모임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밤을 취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공동체로써 유가족과 함께 애통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회에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저는 이 교회에서 저의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시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서로의 필요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저는 주위의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저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제 인생에 보내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한가족 같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곳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집니까? 아무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른사람으로부터 사랑 받기를 기다리시는 것 보다 먼저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전부입니다.

“A 10-Year Prayer”



Peter Yoo(QPEM)

At an early age, I believed that everything in life has been planned. This is before receiving any teachings of this belief. I truly believed that the plan had a master but did not know the name. My early schooling took place in the Catholic school system. Being surrounded in this

environment, I felt a need to become a Catholic. I was baptized in my early teens but without a true sense of what it meant to be baptized. After graduating from the church's education system, I began to question religion and the existence of God. I began to explore other religions and eventually looked to science for answers. It made sense that human logic and reasoning was the right path to answer all of life's questions. As years went by though, the feeling of emptiness and loneliness began to grow. Nothing in life felt important enough to truly embrace and love. Even the passing of relatives and friends, I felt no emotions.

I met my wife ten years ago. When we first met, I jokingly told her that I would marry her someday even though we were not dating. It became routine throughout the years that I referred to her as my wife even though we were just friends. One day we were brought together to begin our life's journey. She is a Christian and wanted me to attend service. I reluctantly joined her but was surprised to witness a different way of worshipping God. It was uplifting in a way that sparked something within me. Although my stance at the time kept me from participating in prayer and song, the hardness I felt began to soften. We attended service in various Christian churches and my path to Christ began.

We wanted to find a home church in Queens to establish ourselves. A church was found but we could not find parking to attend. After a quick internet search, we found a 12 o'clock English service at QPEM. Ironic as it sounds, the sight of the parking lot sparked a sense of belonging. Our first service was in August 2014 and it was a sorrowful time for the church. Pastor Peter preached that Sunday with the passing of a young child name Jake. He found strength in Jesus to deal with the loss. It was the first time I felt closeness with Christ. To witness true devotion to Christ through tough times and mourn and tear for someone I never met.

As we continued to attend service every week, the teachings of Christ became clearer to me. The focus on the passages and their true meanings made sense. But above all, I began to feel the Spirit of the Lord within me. I am free to speak to God directly to give thanks for his love and grace. During the first few weeks of attending service, we were also planning our wedding. Having been so moved by Pastor Peter, we asked him to preside at our ceremony. He graciously agreed. We were asked to go through a pre-marital counseling where we also had gospel teachings. Those teachings helped me to understand and feel God's glory, truth and grace.

The day before the wedding, I accepted Christ as my Savior at our rehearsal with Pastor Peter and my wife as witnesses. The last doubt that I had in my submission to God was answered. My wife later stated that she had prayed for 10 years to marry a man who truly loves God and He has answered her prayers.

A month after marrying the love of my life, my wife, Margaret, I was baptized in November 2014. My baptism was a public declaration of my faith in Christ and it was a blessing to share this with the brother and sisters of QPEM. It was an important point in my life to obey Jesus' command and commit to him from that day forward.

I truly believe that everything in life has been planned - God's perfect plan.

주일학교를 통한 전도의 지혜



배혜리 집사

저는 뉴저지에 친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한국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쪽 믿음생활을 잘 했던 언니였는데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와는 거의 20년 가까이 발을 끊고 살고 있는 언니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저희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들면 뉴저지 근처 교회라도 가라고 많이 설득을 했지만 전도라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언니가 교회 다녔을때 느꼈던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여러가지 재촉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는 순간 언니는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 전도는 힘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한 저는 언니의 아이들부터 저희 교회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언니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조카들만 교회로 라이드를 해 주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1년 가까이 같이 교회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 유년부를 거쳐 지금은 초등부에서 열심히 주일성수하고 이번 교회 초등부 수련회에도 참가를 해서 조카들 중 한명은 수련회에서 성경퀴즈를 잘 풀어 라면도 상품으로 받아 올 정도로 아주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언니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언니가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3주째 되던 날 김성국 목사님의 한 설교가 언니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언니는 김성국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며 지금까지 매주 주일 저희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올 지라도 다시 교회 앞에 나와 무릎꿇게 하신다는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저에게도 깊은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2016년 저의 기도제목 리스트 마지막에 언니 가족의 구원이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2017년 초에 2016년 기도제목을 다시 보고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의 기도 제목이 1년안에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가장 희망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언니 가족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김성국 목사님의 소중한 설교로 인하여 저희 언니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나머지 저희 가족의 구원도 언제가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더 열심히 말씀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구원, 하나님의 두 손 꼭 잡고!!!



류선영 집사

어릴 적부터 택하심을 입었으나 사춘기 시절부터 세상친구들이 좋아 어울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지쳐있을 때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는 이를 만나 결혼하고 5년후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위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험

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며 임신과 함께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만에 다시 찾은 하나님의 품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1살이 넘자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의 믿음생활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느낌은 평안, 마음이 너무도 편안했습니다. 지금의 퀸즈장로교회였습니다. 영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영아부의 예배를 지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열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영아부를 졸업하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로 성장하며 조금씩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실천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정신이 없다면 너무도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어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마음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저희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즈음 찾아온 시련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차면 하루 종일 찬양만 들으며 살려달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올 한올 얹혀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절망 속에 있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돌아서기에, 가끔은 모른 척 외면했기에 하나님이 뻗은 손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길 끝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서있는 모습으로 아이를 끌고가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만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제

내 손으로 아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족,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려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실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힘든 시련이 오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의 유희에 흔들리고 나약한 마음에 사로잡혀 시련이 찾아오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信心大家庭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가족

- 马媛媛 (마원원)



我为我主耶稣基督作见证。我的名字是马媛媛，今年25岁。我是去年七月份来到美国的，八月份怀孕，九月份不幸流产。在流产期间我通过我的房东认识了孟姐妹。孟姐妹是一名中医，她帮我调理身体。在这期间孟姐妹向我传福音。出月子以后，因为好奇心，我就跟随孟姐妹参加了我们教会去年十月份举办的《回家》主题的活动。因为听了陈传道的讲道，我对

耶稣基督有了初步的了解。

在这个时候，皇后医院给我寄来了账单（我是在皇后医院就医流产的）。因为自己没有身份，巨额的医药费都得我自己承担。这个时候我很迷茫，就给孟姐妹打了电话，孟姐妹教我祷告，并且帮助我一起祷告。最后，在我主耶稣的帮助下，我的医药费全免了！这让我实实在在更相信我主就是我生命的主宰！从那以后，我就让我主耶稣保守我的一切，作我一切的主！

信主之前，我是较野蛮的，凡事我都要以我为中心。信主之后，为人处事不会计较太多，反而越不计较心情越好。因为我主给了我永生，我是主的孩子，所以，我不去跟他们计较！信主之后，我觉得我特别轻松，因为我的神主宰我的生活，我只要按照神的旨意去做就可以了！

在家庭中也是一样，我尊重我的丈夫，不再像之前那样处处压迫他，觉得他是个男人就应该所有事都得让着我。但是在耶稣基督里我知道，作为一名妻子的责任和职责是什么，我也努力向着这个方向竭力去做，作一名合格的妻子，合格的儿媳妇，不久的将来作一名合格的母亲。感谢主耶稣教会我这么多的真理！

自从我来到韩中长老教会以后，就觉得这里就像个大家庭一样，每一次来到教会参加崇拜、查经或祷告会，看见教会的服侍人员，他们都很热情的跟我打招呼。我的组长，区长还会不时的打电话给我关心我近期的情况，让我这远在异国他乡游子能深深地感受到家人的关爱与温暖，让我不再害怕。同时教会的陈传道在这么多的基督徒中还能记住我的名字，每次崇拜结束后都会跟我们一一握手，对我们也很关心，一有时间就会找我们信徒聊天，带着有需要代求的信徒一同祷告。在这个大集体中，我真的能够感受到弟兄姐妹之间的亲情。我们乃是一家人！

我现在很骄傲能够在韩中长老教会成为一名虔诚的耶稣基督的信徒！感谢赞美主！

저의 주님이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저의 개인 간증을 적어보려합니다. 저의 이름은 Ma Yuanyuan이고 올해로 25살 입니다. 작년 7월에 미국에 와서 8월에 임신하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9월에 유산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살고있는 집주인을 통해서 맹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맹 자매님은 종의사로 저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조리가 끝난후 저는 호기심에 작년 10월에 교회에서 열린 <coming home>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에 참가하게 되고 천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퀸즈병원에서 저에게 거액의 치료비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퀸즈병원에서 유산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너무 막막하여 맹자매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자매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료비용은 모두 공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전, 저는 성격이 거칠고 모든일에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이상 많이 따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따지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저는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남편을 누르려고 하고 또 남자니까 당연히 모든 일을 여자인 저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것인지 깨달음으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또 멀지 않은 장래에는 좋은 엄마가 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성경공부를 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할때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뜨겁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 저의 그룹리더나 교구장들도 자주 전화해서 저의 근황을 물어보며 살피주십니다. 멀리 이민땅에서 지내는 저에게 가족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겁이 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전도사님께서 많은 성도들중에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항상 한분 한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악수를 건네시는 모습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따뜻함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진심으로 형제 자매사이에 사랑을 느끼며 우리는 한가족임을 깨닫습니다!

I'm So Sorry, Joey!



Lin Chen

Hey Joey,

I've been thinking about how to write this letter to you all week. It's been... really hard. There are days when I think of you and I'm not okay. I'm trying to be though, I am.

I remember when I came into your room that day and you were just laying there. You looked so peaceful and I was just standing by your bed, and it was so quiet except for the machines beeping in the background. It felt so surreal, like nothing had happened. But you were laying there with so many tubes around your face, and the nurses had shaved off part of your hair, and your face was this color it shouldn't have been, and I don't know man. It was just so strange. That's not how you were suppose to look. You were in such bad shape.

But I remember before I came in to visit you the nurses had told me you were going to wake up soon so I wasn't too worried. They said you were going to make it so I didn't cry or anything, I just joked around with you like I always did. And I remember, I said it with this stupid grin on my face, "Hey idiot, I hope you're ready 'cause when you wake up I'm going to give you the whole gospel presentation. Two whole hours." And I laughed. And your mom laughed. And I knew it was going to be okay because when you woke up we were going be laughing about this together.

Except you didn't wake up.

And I got this call saying you were never going to wake up. And I was too late. And I was too late to say any of the things I should have said to you. And now I just keep thinking about how I won't ever be able to invite you to another birthday party, or ask you to be my best man, or ask you to meet my kids, or ask you to come to my church, and I keep thinking about how I missed my chance. How I messed up. I'm not laughing anymore because I'm never gonna be able to tell you the gospel and I don't know how to make this right and I don't know what to do. I'm so sorry man. I should have screamed it at you. I should have been there. I should have tried. I should have done everything to let you know how much He loves you and I didn't. And I'm so sorry Joey.

I should have fought for you.
I should have loved you more.

I can't do anything anymore and I'm just wishing that some part of you could have heard me when I was crying over you trying to tell you how much Jesus loved you. I wish some part of you heard me when I tried to tell you how he died for you, how he would have given anything to save you. I wish so much that some part of you believed, that some part of you heard me begging you to believe.

I'm so sorry man. I let you go without telling you about Christ. You should have known.

I should have been the one to tell you.
I'm so sorry Joey, please, forgive me.

내가 품은 태신자

'Romans 8 / Love the Word - my King my Lord.'

박상용 집사



“내 안에 흔들 깃발이 있는가?” 누군가 내게 말했다. 누군가 내게 도전하였다. 누군가 내게 깃발을 흔들었다. 다시 말해 ‘외칠 message가 있는가?’ 이다. 내 평생에 목숨걸고 외칠 message가 있는가? 그리고 그 message는 살아 숨쉬고 있는가? 아님 그냥 종이짝에 쓰인 글씨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릴 부르신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뜻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도 썼다. ‘Purpose driven life’라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많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이혼, 삶의 고난, 매일매일의 사회생활, 왕따, 고독 등등 - the list goes on.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힘든것이 있다면 ‘무의미’ 아니겠는가? 어떤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뜻을 모르고 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짜증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래 못갈 것이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의미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힘이 난다. 이상하다. 그만큼 뜻은, 의미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찾는다는 말과 같다.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날 선택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릴 만드실때 original design이 바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 뜻을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뜻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각자 삶에서의 detail은 동일하지 않지만 큰 그림에서는 동일하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리고 그 영광의 대상을 영원히 즐거워 하는것이다. 그럼 영광은 어떻게 돌리나? 간단하다. 영광받으실 대상의 말대로 하면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전도다. 전도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나는 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나의 딸을 통해서 느낀다. 이름은 박금. 하나님께서 10년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 귀한만큼 가

나의 친구, 나의 태신자

올해에는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를 ...

임동진 집사



장 귀한것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보다 더 귀한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내 아이가 내가 품고있는 태신자이다. 예수님을 만나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나의 필생의 태신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천국에서 함께 하고싶은 사람이 있다는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를 향한 나의 첫 걸음이다. The God of revelation.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신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 마음에 열정의 파도를 치게 한다. 그리고 그 열정은 곧 기도와 복음선포로 이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것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가? 바로 가장 값진것으로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그러면 된다.

태신자를 위한 나의 기도

‘내가 만난 참 평안의 하나님’

김현우 집사



주일에배를 드리면서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는 예화가 있다. 나중에 하나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니. 나는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는 이야기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많은 간증 집회에 가곤 했었다. 대부분의 간증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안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 더 불어 나는 과연 나중에 간증을 한다면 어떠한 간증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과 한편 ‘간증거리가 없으면 어떻하나’에 관한 걱정을 안고 중고등학교 시절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지금 나에게서는 아주 큰 간증거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나의 분야에서 뛰어날 만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커리어를 쌓았음도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정반대로 많이 부족한 나의 삶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안함’이다.

현대사회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평안함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 많은 경력을 쌓고 돈을 모아도 그것들이 참 평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며 그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 ‘참 평안’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선물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해주고 싶다.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분들께 참 평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참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지상명령이 복음전파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 친구, 이웃이 내가 만난 참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

글재주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라는 권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심이 있을 것이라는 대책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있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핑계거리로 머뭇 머뭇하던 저를 강권하셔서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전도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듯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요.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미국까지 함께 온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전해주고 싶어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친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미리 알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 버립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겨서 행복해 하며 살고있는 이 친구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번 사순절을 통해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30회 사순절 서원 특별 새벽기도회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 지어다!”

2017년 3월 6일(월) - 4월 16일(주일)

사순절 Day-1

예레미야 20:12~17

“치유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 찬양,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참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고쳐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치유는 바로 상처로부터 새 삶이 돌아나는 것이다.

예배 시작 10분전 이미 교회 주차장은 가득 들어차고 로비에서부터 찬양이 힘있게 울려 퍼진다. 예배 후의 친교실의 광경은 앞으로 40일 동안 아주 바쁘게 성도들의 교제하는 모습들로 북적일 예정이다.

사순절 Day-2

예레미야 8:18~22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됴인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거나 상처를 치료할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상처는 회복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교회 주차장부터 본당 입구, 로비까지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인다. 언제나 사순절 때마다 그랬듯이 바쁘게 돌아가면서도 정리된 모습들... 기도 후에는 로비에서 인증샷 남기는 청년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사순절 Day-3

이사야 61:1~3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는 분이다. 먼저 가난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받는 것보다 베풀으로써 가난이 치유되어야 한다. 또한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고쳐주신다. 슬픔도 치유해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어김없이 본당에서 들리는 찬양소리 그리고 사순절의 전매특허인 최윤희 권사님의 무대를 장악하는 열정, 아마 사순절 내내 더 불붙지 않을까... 예배 후 친교실에서는 오늘 베이글 도네이션 해 주신 이인철 장로님(이길자 권사님)을 위해 담임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장로님의 가정 되기를...

사순절 Day-4

스가랴 4:6~10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는 큰, 산 - 두려움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은 흔들림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견고히 설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남을 따라하고 흉내내기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성령님 의지하며 살자.

사순절 때마다 찬양대석은 청년들이 자리를 채운다. 예전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청년대학부, 청년선교부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주제처럼 치유하심으로 인해 더 전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사순절 Day-5

사도행전 3:1~10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최악의 인생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가능하다.

사순절 때마다 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사순절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날 예배를 위한 성경봉독을 하는 것. 담임목사님께서 지난 2015년 부터 3년째 청년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다. 세상의 리더, 영적인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Day-6

사무엘하 23:20~23

“그 사람, 브나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걸으로 볼 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는 지혜이고 능력이고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남들과의 비교 의식으로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닌 현재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으로 들어서면 예배실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북적대지만 양 옆으로는 누가 오는가를 체크하는 각 교구장 전도사님과 청년부가 서서 맞이한다. 이번부터는 그 대열에 중국어예배부도 합류하여 함께 하고 있다. 사순절 첫 주가 끝나가는 이 시점,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예배후 북적대는 친교실 모습

사순절 Day-7

시편 34:15~22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우리의 깨진 마음이 인생에서 악취를 내고 힘들게 한다. 우리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에서 다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상한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바로 1) 약속으로, 2) 통회함을 통해서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 우리의 입, 눈, 얼굴이 달라지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찬송한다.

사순절 두번째 주의 시작, 지난 주부터 생긴 모니터의 이상으로 여러 부분에 불편을 겪을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은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방해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위한 베이글 도네이션을 해 주셨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사순절 동안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8

요한복음 11:32~44

“나사로, 묶여 있던 남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3가지를 말씀하셨다. 1) 돌을 옮겨 놓으라. -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먼저 돌이 치워져야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절망, 의심의 돌을 치우고, 또한 안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2) 나사로야 나오라. -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 주님께서 그 결박을 푸신 것처럼 현실의 단계를 뛰어넘는 선포로 나아가야 한다.

사순절 동안에 한번은 오리라 생각했던 폭설, 그 폭설도 우리의 서원 새벽기도회를 막을 수는 없다. 예배시작 30분전부터 갑자기 거센 눈보라에도 지하 친교실에서는 우리의 몇몇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후 성도들이 먹을 빵을 손질하고 계신다. 예배실 안에도 눈길을 뚫고 각처에서 온 성도들로 차기 시작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다.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사순절 Day-9

창세기 29:31~35

“레아, 사랑받지 못한 여자”

하나님께서 상처로 가득했던 레아를 치유하시기 원하셨고 직접 개입하셔서 치유하셨다. 레아가 가지고 있던 상처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레아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로 인한 원망이 아닌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다.

전날 내린 눈과 추워진 날씨로 인해 길이 그대로 얼어붙어 새벽기도에 오는 발걸음이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주차장 안내를 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래도 웃으면서 성도들을 맞이한다. 많은 눈이 내렸지만 정진규 집사님의 수고로 주차장이나 교회 주변 길이 정리된 느낌이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격려하고 기도할 때이다.

사순절 Day-10

이사야 54:4~10

“젖었을 때의 수치”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수치심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한다. 수치심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 그 이상으로 다가온다. 수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수치를 잊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야 하는 것이다. 수치가 치유되고 나서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새 사순절 두번째 주 절반을 지나고 있다. 예배 시작 15분전 친교실에서는 성도들이 먹을 베이글들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분주하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이 대접하는 것이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하는 모든 교역자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계속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11

시편 42:1~5

“내 영혼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낙심되고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를 만난다. 그 영혼의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1)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면 회복을 주신다. 2)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야 한다. 3) 자신에게 소망을 말해야 한다. “내 영혼아, 네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 유일한 길과 소망되신 것을 알고 낙심 가운데서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은 예배 중 순서로 기도와 특별찬양 순서를 중국어 예배부에서 맡아서 하였다. 지난 2015년 1월 중국어예배가 처음 신설되고 2년이 지난 지금 2부로 나뉘어 드릴만큼 많은 중국인 회중이 예배를 드리고 2년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로 무장되어야 함을 느낀다.

사순절 Day-12

마태복음 12:14~21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1) 상한 갈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없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상한 갈대인데 주님이 몸소 체험하셨다. 상한 갈대 그 자체가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므로 무시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잡초도 쓰신다. 2) 꺼져가는 심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끄지 못한다. 꺼져가는 인생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세워주신 것과 같이 나의 정체성, 주님 주신 사명과 기쁨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총동원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사순절 두번째 주 끝자락, 오늘은 전날부터 연합으로 모여 집회를 하는 필라 영생장로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청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신다.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이 청년들은 오후에 맨하탄으로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사순절 Day-13

말라기 4:1~6

“비추어 주소서”

빛,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 다. 이 치유의 광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어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의 고백을 감사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치유의 광선은 송아지 같이 뛰게 하고, 악인을 밟고, 마귀를 제압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성화되고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함이다.

어느 덧 사순절 세번째 주, 우리 모두에게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듯 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너시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매일 사순절 예배 전 드리는 찬양 ‘너를 고쳐주리라’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한다.

사순절 Day-14

요한복음 5:1~13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둘째, 묶여 있는 생각이 아닌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낫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셋째,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지만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

사순절을 시작하고 특히 설교 통역하는 분들의 수고로 많은 다민족 회중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회중이 통역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순절의 달라진 또다른 풍경 중 하나이다. 다민족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양보와 수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15

마가복음 5:25~34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주시는 것은 첫째,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 물질, 돈을 다 허비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영적인 병도 고치셨다. 그 병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기회인 것이다. 둘째, 열매 맺는 믿음은 단계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행동을 취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행동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다. 셋째, 두려움의 여인이 딸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딸, 아들이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 부여되는 것이다.

사순절 셋째 주, 이번 주간 동안의 주된 주제는 약한 육신의 치유이다. 그래서인지, 예배 후 담임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뛰도록 말씀하셨다. 결국, 그것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포이고, 그 선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생각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마음을 울린다.

사순절 Day-16

야고보서 5:13~18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과 질병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 기도는 첫째는 나를 위한 기도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전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세우신 목사님, 교역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셋째, 믿음의 기도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오늘도 예배 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 그 중에 마음을 울리는 한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찬양하기 위해서였는지 기도를 받고 싶으신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나오시고 성도들의 찬양 중에 담임목사님의 그 권사님을 향한 기도가 이어졌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는다.

사순절 Day-17

고린도후서 12:7~10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는 왜 약할 때 기뻐하며 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도 7번 만에 기도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 둘째, 약한 자에게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자신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 셋째,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사순절 3주차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고백이 삶 가운데 나올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 금식해야 할 교만의 부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월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길 소망한다.

사순절 Day-18

마태복음 15:21~31

“치유의 궁극적 목적”

모든 치유사건의 결론, 열매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영광을 돌린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는 때로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잘 넘어서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에 놀랄 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 참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다.

청년선교부의 토요 새벽 찬양이 울려 퍼진다.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비전이 또한 청년선교부를 통해,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정성으로 해물죽을 준비해주신 모든 안수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스케치는 아가페 398호에 연재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사회복지 세미나

뉴욕시와 정부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알아보다

조성순 집사

공하는 많은 서민 주택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4) 푸드 스탬프(SNAP)는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많이 이용하기를 당부하였다.

가정 사역부에서 준비한 좌석 120여개가 모자라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성도들과 세미나장의 열기는 영하의 날씨를 무색케 하는 유익한 세미나였다.

시니어에 한정되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의 제한이 있음에 아쉬움을 표하였고,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혜택들이기에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한채 교회의 허락을 받아 곧 매주 일정한 장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사회자의 발표가 있을 후, 김성국 목사님의 기도로 2017년 상반기 사회복지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영하의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3월 4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친교실에 마련된 사회복지 세미나 장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예정된 7시 15분이 되자 가정 사역부장 장봉석 장로의 사회로 세미나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시편 36편 7-8절 본문으로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어서 주강사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박세희 집사와 뉴욕시에 근무하는 박세은 집사가 소개되었다. 곧이어서 QPEM소속 박세희 집사의 강의를 진행되었고, 이어 박세은 집사의 강의도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어는 62세 부터 수혜가 가능하며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이드는 나이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의 인컴에 따라 그 혜택의 범위가 정해진다. 두 보험다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혜택과 수혜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사회 보장 연금(SSA)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각자가 일을 하고 납부한 사회 보장세의 기록에 의하여 차등 지급된다. 생계보조금(SSI)은 제한된 수입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한번도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 이 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엔 SSD가 준비되어 있다.

3) 노인 아파트는 62세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월 렌트비가 달라질 수 있고, 평균 신청후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까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매 2년 마다 신청을 갱신해야 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외에 서민 아파트의 종류가 여럿 있지만 미첼라마(Michell Lama)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한국의 청약 주택 같은 개념으로 추첨에 의해 선발된다고 한다. 한인들에게 가장 적합하며 나이와 상관 없이 수입과 식구수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지원이 가능하기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AM NY일간지나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기를 권하였다. 웹주소는 nyc.gov/housingconnect로 접속하여 화면 오른쪽 아래 Search and select affordable Housing를 클릭하면 현재 뉴욕시에서 제



교회의 얼굴을 새롭게...

- 본당 로비공사 -

고국환 장로



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 착공예배



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 착공예배

35년전 세워진 본당이기에 LOBBY가 좁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좀 더 넓은 LOBBY의 필요성을 알았지만 이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연기되어 왔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만 필요한 변화를 원하시는 김성국 담임목사께서 넓고 쾌적한 공간을 계획하시던 중에 2016년에 행정국장이 저를 총무부장과 시설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중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새롭고 아름다운 LOBBY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마음에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며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결 해 나가면서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교회의 일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건축설계사를 선정하여 2016년 9월 22일에 담임목사님과 교회 관련된 부서들과 일차 모임을 가지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에 걸쳐 도면을 준비하였고 새로운 생각이 더해질 때마다 수시로 도면변경을 거듭한 끝에 사무실 공간을 50% 이상 줄이지 않고는 큰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목사님의 허락 후 당회보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사를 위한 재정지원은 2016년 교회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때 임직받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자들의 임직감사헌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LOBBY는 교회의 얼굴이기도 하기에 일반 건축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DESIGN TEAM이 있는 회사를 찾던 중 DESIGN 관련된 상을 받아 신문에 기재된 회사를 연락하여 필요한 해결점들과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능력



허물기 전 새벽



로비공사 1단계

검증을 한 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견적서를 받은 후 정길표장로님과 함께 건축회사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교회측 요구사항과 가격조정을 요청하여 2차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타회사와 견적을 비교한 후 최종 선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에 성도님들과 공사관계자들이 모여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착공예배를 드린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완공 시점을 부활절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해 성도들의 불편함이 큰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완공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소장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기에 건축회사(누리건설)에 세 가지 약속을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정직한 가격. 둘째, 정직한 공사. 셋째, 아름다운 LOBBY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위해 함께 수고하시는 이신은목사님, 정길표장로님, 정진규집사님, 김인환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담임목사님의 사역에 변화의 힘을 실어주는 의미있는 LOBBY가 완공되어 질 때를 위해 기도하며,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걸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원하고 넓게 트인 공간으로

- 누리건설 이상준 대표 인터뷰 -



누리건설 사장과 디자인 팀장

교회 크기와 주일 유동인구수에 비해 다소 협소한 로비로 인해 혼잡함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하여 본당 로비확장 공사가 지난 2017년 2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누리건설 이상준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완성될 새로운 로비를 미리 보겠습니다.

***로비디자인 당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작은 사이즈와 답답한 느낌을 주며 조명이 어두웠던 로비를 보다 시원하고 넓게 트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 기존의 건축설계로 인해 천정공간확장에 한계가 있는 않았나요?**

건물구조상 천정의 높이가 현재보다 아주 많이 높아 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구조적으로 허락된 부분들을 디자인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로비 전체의 천정을 높이고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밝고 시원한 느낌과 공간의 안락함을 최대로 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로비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새신자실과 사무실의 공간확보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새신자실과 사무실은 Built-in Book Shelves를 한쪽 벽면에 설치하고 작은 문이 달린 Pantry를 배치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로비의 느낌과 트인 공간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전체 컬러 컨셉을 Warm Tone White과 자연적인 소재인 Walnut Wood로 선정하여 깨끗하고 환한 느낌에 따뜻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로비에서 연결되는 새신자실과 사무실의 벽면전체를 Glass Wall로 하여 기능상으로는 분리된 공간이지만 시각적으로 트인 느낌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활용되지 못했던 창문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십자가 형상의 구조물을 만들고 십자가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을 줌으로써 전체 공간에서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비공사 조감도



LOBBY with NEW ENTRANCE



LOBBY with GRAND DOUBLE ENTRANCE



LOBBY with HALLWAY IN VIEW ENTRANCE



LOBBY with HALLWAY AND PERSON



“ 33년 섬겨온 권장, 구석 구석 내 마음에 ”

- 이신은 목사님과의 감동 인터뷰 -

정민영 집사



본래 전문분야가 무엇인가 여쭙보니 냉장, 냉방이지만 교회 일을 하다보니 목공, 플러밍, 전기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로비 한쪽 벽면에 있던 붙박이 벽장과 선반들도 손수 나무를 잘라서 짜넣으셨다고 하신다. 원래 손재주가 많으신지 몰으니 어릴적부터 손재주가 남다르기도 했고 워낙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셨다고 하신다.

1989년 9월 동부개혁신학교가 설립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기가 너무 벅차서 관리집사직을 사임하셨지만 1991년 교육관(양순관)을 건축할 당시 냉방공사에 참여하셨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교회 곳곳의 시설관리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보니 수많은 추억들이 쏟아져 나온다. 교회 새벽예배 라이드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도 목사님이시란다. 어떤 권사님이 차편이 여의치 않아 새벽예배에 못오시는 것을 보고 권사님의 조카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저렴하게 마련해서 4-5명의 권사님들을 새벽기도 라이드를 하셨는데 원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아져 교회에 밴을 요청해서 본격적으로 새벽기도 라이드를 하게 되었다. 당시 밴을 이용하던 권사님들이 이제는 90 수를 바라보신다고 한다. 지난달 아가페 표지에 기도의 어머니로 나오신 장정자권사님은 지금도 목사님을 뵈면 “차장”이라고 부르시며 옛 기억을 떠올리신다.

당시에는 교회 바자가 “김치 바자”였는데 주차장에서 주방방장 고까지 2천병의 김치를 지게에 지어서 나르셨다고 한다. 시설물 수리, 보수, 관리, 교회청소 심지어 방송실까지도 목사님의 몫이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정진규집사님이 떠올랐다. 현재 교회 관리집사님으로 정가이버(맥가이버), 슈퍼맨으로 불리우는데 원조 슈퍼맨과 마주하고 있는거였다. 감히 이가이버라고 불러드려도 될지. 한눈에 교회 시설도면과 건축도면이 떠오르며 교회 건물 곳곳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의 상황도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곳곳에 33년의 손길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닿았으리라 생각하니 차가운 바람에 맨손으로 냉각기를 살피시던 손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가페 본당로비공사 기사를 준비하던 중 이신은 목사님께서 공사에 협력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 낮에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나섰다. 지하실에서 천정을 뜯어내고 작업에 열중하고 계신 목사님을 찾을 수 있었다. 냉방기에서 물이 새서 고치는 중이라고 하셨다. 이내 옥상으로 올라가는 목사님을 무작정 따라 나섰다. 권장 12년만에 처음으로 올라가보는 옥상이었다. 한주 전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옥상에는 여러대의 대형 냉각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진눈깨비가 날리고 바람이 부는 날 맨손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 인터뷰 요청을 하니 잠시 작업을 중단하시고 그제서야 친교실 한켠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본당로비공사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하시는 작업은 쿠팡 양순관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사전작업중이라고 하신다. 그리고보니 주중에 교회를 드나들 때면 때때로 작업중이신 목사님을 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주방의 밥솥을 고치시고 주차장 한켠에서 합판을 자르시는 것도 보았다. 목사님께서 교회 시설관리 일을 하시는 것을 본 것이 수년전이었기에 언제부터 교회일을 하셨는지 여쭙었다.

어릴적부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1984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오셨지만 여의치 않던 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뉴욕에 오시게 되었다. 맨하탄에서 내려 하숙집을 찾아 간 곳이 교회 바로 옆집이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작은 외할아버님과 절친한 지인이셨던 이규성 장로님의 소개로 퀸즈장로 교회 관리집사직을 맡아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신다. 마침 당시에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개원하시려고 준비 중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던 것이다. 그렇게 권장과 인연이 닿아 본당건축 때 사무실로 사용했던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관리집사로 일하셨다. 당시에는 지금같이 관리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부서가 조직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일을 혼자서 복치고 장구치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신다. 그나마 당시에는 청년들이 많은 일을 도왔다고 한다. 토요일에 예식이 있는 날은 청년 몇몇과 모든 뒷정리를 다하며 주일예배 준비를 했었고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청년들이 삽을 들고 교회로 달려와 목사님을 도왔다고 한다.



로비공사 기사를 위해 잠시 만나뵈려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이야기보따리가 열렸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 만큼이나 재미있어 시간은 줄도 모르고 앉아서 귀 기울였다. 본당로비공사는 건설업체에서 냉방작업까지 맡아서 하기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작업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하신다. 정진규 집사님과 함께 건물내부 시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니 작업중 시설구조에 관한 조언을 주며 돕는 것뿐이라 말씀하시며 그 동안 하셨던 모든 작업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싶은 마음 뿐이시란다. 처음부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일들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전부라고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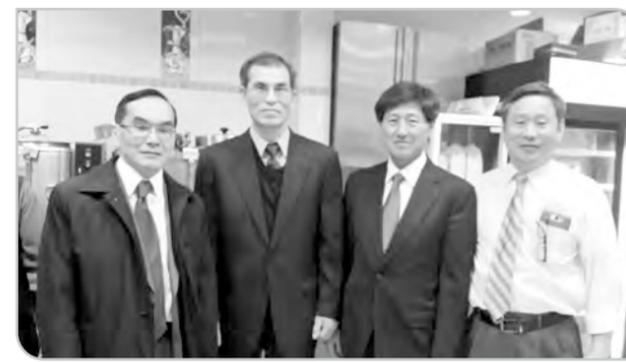
이신은 목사님과 예상하지 못했던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목사님과 같은 분이 43년 권장역사에 어디 한두분일까 싶은 것이 마음 한켠이 뭉클하게 감사가 넘친다.

43년을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지켜온 신앙의 본과 교회를 내 몸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결같이 섬기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2017년의 권장의 모습이라 생각하니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본당 로비 공사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다민족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더불어 목사님의 먼지 묻은 작업복과 차가운 맨손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때이라 생각되어진다.

모쪼록 43년 역사와 함께 하신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고 다음 세대에도 분이 되어져 아름다운 섬김이 이어지는 권장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기를 소원한다.



“ 복음을 위탁받은 증거인이 되자 ”

제 54기 전도폭발훈련 개강예배



제 54기 전도폭발훈련 개강예배가 지난 3월 21일(화) 저녁 8시 30분 양순관에서 있었다. 이 개강예배는 지난 14일에 드릴 예정이었으나 내린 폭설로 인해 한 주 연기되어 이날 드러졌다. 예배 전 만찬이 본당 지하 친교실에서 7시 45분부터 있었고, 만찬 후 드러진 예배는 전도폭발 위원장인 최원일 집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경배와 찬양 후 조나영 권사의 기도, 홍정택 교사의 성경봉독이 있은 후 소철화 권사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살전 2:4)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사명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에서도 피하라고 하는 자가 없이 방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증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도폭발 훈련팀의 헌신찬양 후, 중국어예배부 Shirely 훈련자의 간증이 이어졌다. 간증을 통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리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정리가 되어지고 왜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는가를 이야기 하였다.

이어진 광고시간에서는 이번에 함께 훈련받게 되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 훈련생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54기 훈련에는 총 18명의 훈련생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지난 기수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일날 행해졌던 중국어 전도폭발 훈련이 한국어, 영어 훈련과 같은 화요일로 옮겨진 점이다. 앞으로의 13주 동안에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 전도폭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516장 찬송 후에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개강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예배 후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첫 훈련이 각각 나뉘어져서 진행되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던 때에 처음 찾아 온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저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오래 전 제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찾아와 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믿고 맡기겠으니 몇년만 수고하면 잃어버린 재물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부부가 초등부교사로 봉사를 시작했기때문에 주일을 범할 수 없다는 마음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때문에 친구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여러 물질의 연단은 받았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한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내어 맡기고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더니 말씀 안에 잘 성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므로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서 우리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민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어 감사한 일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회원으로는 은퇴를 하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내 앞에 있는 풋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 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은 일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다민족 선교와 차세대 양육의 비전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6. 고국환 장로

교회설립 43주년 기념예배에 19년간의 시무장로직을 은퇴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장영춘 원로목사님, 김성국 담임목사님,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희가 무역업을 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좋은 직장을 버리고 미국에 왔고 다음 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979년에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저희 부부를 말씀으로 훈련, 훈계하시고 기도로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신 장영춘 원로목사님과 장미는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여러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으며 건강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고현숙권사가 오래 동안 건강이 여의치 않아 함께 봉사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오늘까지 오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사업을 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하여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환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임순미 집사

전교인 여름 수련회의 예배중 우리집 아이들과 또래 아이들의 소란이 예배에 방해가 될까 싶어 조심스러워하던 중 옆자리 중년의 점잖으신 부부께서 아이들을 다독겨주셨습니다. 천진해 보이시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셨던 두분이 누구실까 궁금하여 이름표를 보니 “고현숙”. 하하,,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 그 옆의 신사분은 “고국환” 장로님이셨겠조. 이런 분들과 친분을 갖으면 좋겠다는 큰 바램이 있었지만 그 후로 여러해를 두분의 성함은 종종 교회 주보를 통해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 구역에 새로이 지도원으로 오시게 될 장로님을 대신하셔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장로님이 처음 지도원으로 오실 때만 해도 20여명이 모이는 대가족 구역에서 저는 “나 하나 쯤 게으름을 부려도 표도 안나니까”하는 마음으로 두어달에 한번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구역식구로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몇년을 보냈습니다.

5년전 굳건한 믿음의 구역식구들을 필요로 하는 여러지역으로 보내고 “소수정예” 구역이 되고나니 장로님과 권사님의 헌신이 몇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역원들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구역예배를 섬기던 것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로님 덕에서 매달 드리게 되며

이런 상황 가운데 저의 한달 스케줄의 우선순위는 세상일에서 구역예배로 바뀌었고 장로님, 권사님과 이젠 정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내외분과 한 식구로 교제하며 두 분의 겸손함과 헌신된 모습을 봅니다. 두 따님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훌륭히 키우셨음에도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는 장로님, 권사님께서는 늘 무릎꿇고 섬기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근엄하시고 점잖으신 장로님이시지만 늘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웃음을 주시고 식사 후의 다과상을 꼭 본인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특히 과일 은 웬만한 여자 집사님들보다도 더 예쁘고 빠르게 깎으시고 설거지 당번을 자처하시는 우리들의 “공대오빠”. 구역의 최고 연장자지만 굵은 일은 도맡아 하시며 항상 짓군은 미소를 지으시는 유쾌하신 장로님!

교회의 정관에 따라 이제 시무장로의 자리에서는 은퇴하시지만 구역과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은 늘 건강함 속에서 계속되어 지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장로님과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삶, 나의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퀸즈장로교회



이상협목사, 최빛나사모, 이하은, 이인숙권사, 이근우장로

첫 아들 상협이가 생후 2개월이 되던 때, 서울의대 소아외과에서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도 5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에 치료를 포기하고 신림동교회 길자연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는 하나님말씀에 절에 다니시던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하여 응답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감격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뉴욕에 올 때에 길자연목사님이 퀸즈장로교회를 추천해주셨지만 친구를 따라 다른 교회를 다니던 중,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을 느낄 때 심의례전도사님의 권면으로 1997년에 퀸즈장로교회 등록교인이 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로목사님과 사모님의 열정적인 섬김과 말씀의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신앙적 도전을 받으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2003년 안수집사로, 2007년에 시무장로로 임직하여서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 시온찬양대 총무, 남전도회 연합회장, 비품관리 부장, 봉사위원장, 홍보출판 위원장, 기술국장 등 다양한 부서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교회 교육부서가 굳건히 세워진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타교회에서도 교육부서가 잘 세워져 있지만 이민 초창기에는 타교회 주일학교에서 참관예배를 올 정도로 퀸즈장로교회의 주일학교예배가 명성을 얻었습니다. 당시 장영춘목사님께서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교육부서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과 기도가 지금의 교육부서의 초석이 된 것을 바라보며 유년부 부장을 맡아 섬겼던 시간들이 보람과 감사로 기억됩니다.

퀸장의 교육부서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두 아들, 상협이와 상현이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에게 중, 고

등부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상협이가 탄자니아 단기선교에 가서 장티푸스와 말라리아에 걸려 온 교회가 기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새 생명을 받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후 상협이는 아프리카 선교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대학교 졸업 후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상현이는 조지워싱턴 MBA 졸업 후 음료사업을 하며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집사 피택을 받아 섬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두 아들을 하나님의 종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원로목사님,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였던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퀸즈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나의 삶,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퀸즈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퀸즈장로교회가 되어 온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7. 3. 15. 이 근우 장로

나의 아버지와 퀸즈장로교회

아들 이상협 목사

나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조국과 가정을 뒤로한 채 가방 하나를 짊어지고 1989년 미국땅을 밟으셨습니다. 미국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영어도 어눌하셨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낮과 밤을 지새우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아내와 두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혼자 지내는 불편함과 외로움, 여러가지 어려움들도 기꺼이 이겨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터전을 준비하신 후 저희들을 미국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몇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저희 가족은 한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의 깊이와 강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였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나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더 큰 깨달음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변함없는 가정의 든든한 지침들이셨습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자신의 가정만큼 아끼며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퀸즈장로교회를 변함없이 섬기셨고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안보이는 공간에서 혼자서 기도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생각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신실함에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제 버지니아에 계시지만 퀸즈장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변함이 없으신 줄을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장로로 퀸즈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교회의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퀸즈장로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퀸즈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 이상협 목사

QPEM News

GOOD FRIDAY EVENING SERVICE - FRIDAY, APRIL 14 @ 8PM



We will have our Good Friday service on Friday, April 14 at 8:00 pm in the QPEM Sanctuary. This will be a special Joint Worship with QPEM, Senior High and Junior High. We will ponder the depth of Christ's suffering on the cross and anticipate the joy of ultimate victory in Christ's resurrection on Easter. Please join us as we partake in Communion and remember what Jesus Christ did for us on the cross.

QPEM EARLY MORNING PRAYER - FRIDAY, APRIL 14 @ 8PM



QPEM will have our own early morning prayers the two weeks leading up to Easter Sunday beginning April 3 to April 15. The early morning prayers will be in the QPEM Sanctuary starting at 5:45 am. Let's commit to prayer during this time of observance leading up to Easter Resurrection Sunday!

2017 SUMMER MISSIONS



Summer mission applications are now available for all members who are interested in missions this year. Our church will be sending teams to Kazakhstan, Nicaragua, Cambodia, China, Honduras, Native Indian Reservation, India, Ethiopia, and Harlem. QPEM will be leading the Ethiopia and India mission teams. Please speak to Deacon David Shin if you are interested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Let's pray about this opportunity to be Christ's witness this summer!

EVANGELISM OUTREACH - SATURDAYS @ 1PM-3PM



We have Evangelism outreaches bi-monthly on Saturdays at 1pm. This is simply a time when we go out into our Flushing community to shine the light of Christ and bear fruit as His witnesses. Let's respond to Christ's love by carrying out His commands, to love one another, just as He has loved us. Please speak to Deacon Jonathan Hong if you are interested in coming out!

MERCY MINISTRY GARDEN OF HOPE SPRING DAY CAMP - APRIL 10-14



Garden of Hope will host a five-day spring day camp for children from 4/10-4/14. They will need volunteers/teacher assistants from 9am-5pm to help out with the kids program. There will be mandatory training dates on April 1 & 8 from 3:30 pm-5:00 pm at the CCHC mission center (156-03 Horace Harding Expy, Flushing, NY 11367). If you would like to volunteer or get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Deacon Marcelo Chan at marc32905@yahoo.com

PRAYER REQUESTS

1. Praise God for the update on Dylan Panchoosingh (5 year old boy battling cancer) that there were no signs of tumors in his most recent scans! Please pray for Dylan as he continues his immunotherapy and radiation. Pray for complete healing and for Teresa and Roger that they would see God and draw closer to Him through this trial.
2. Please pray for our brother Charles Hwang's mother as she has been battling Parkinson's for a long time. Pray for God's hand to grant healing, peace, and joy in her life through Christ.
3. Please pray for Guang Zhou and Rachel Hong as they mourn the loss of Guang's father. Pray that the family clings on to the hope that is offered by Jesus Christ and that His peace would comfort them during their time of mourning.
4. Praise God for the wonderful news that the Youn family will be expecting a baby boy this coming April! Pray for God's nurture, protection, health, strength and a safe delivery for both mother and baby.

“Recapturing the Gospel in the Age of Millennialism”

By Pastor Kiwi Jin

A full year has flown by since we've started Orison Ministries, our English-speaking college group. God's tremendous mercy is definitely evident as we've seen much growth and transformation as a ministry.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I look back and see only God's faithfulness to His Church. After a year of tears, laughter, joy, and pain with the students of this generation, I'd like to give voice to what I've learned. Through this, I humbly ask for partnership in prayer for our upcoming generations. By no means do I have everything figured out regarding the millennials, but there are a few things I've learned interacting and doing ministry with them.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our church could com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English-speaking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community. But most of all, I hope that we can begin to intercede in prayer and partner in ministry this year for the good of God's kingdom!

To start, "millennials" is the coined term for the current generation of individuals born between the years of 1985 through the mid to late 90's. Millennials are characterized by society for being entitled, selfish, unfocused, and lazy. Millennials are accused of having the most degrees ever in history yet struggle to keep a job for longer than six months at a time. Millennials are accused of getting all the opportunities, yet have trouble deciding where to go in life. Millennials are accused of wanting all the best things with as little work as possible. This is what I thought I was working with when I first started college ministry (as a millennial myself). And to be completely honest, these accusations aren't entirely false. However, after a year of ministry and contextualizing the gospel for this generation, I'm finding out that only God can bring such amazing transformation with such broken people (including myself).

All throughout the Bible, yeast (or leaven) is mentioned negatively. Time and time again, yeast is mentioned as something that brings ruin. Yeast is something that perverts and makes impure. There are a handful of laws in Leviticus specifically asking for unleavened bread because leavened bread was impure. Numbers 6:14-15 says: "He shall present his offering to the LORD: one male lamb a year old without defect for a burnt offering and one ewe-lamb a year old without defect for a sin offering and one ram without defect for a peace offering, and a basket of unleavened cakes of fine flour mixed with oil and unleavened wafers spread with oil, along with their grain offering and their drink offering." Only

pure things were allowed to be given as offering. Any bread with leaven was impure. Paul in 1 Corinthians 5:6 says: "Your boasting is not good Do you not know that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of dough?" Here, Paul is saying that leaven brings ruin to the whole lump of dough. So, all throughout scripture, leaven is referred to as something bad, simply put.

However, in the book of Luke, Jesus compares leaven to the Kingdom of God. In Luke 13, Jesus says: "To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It is like leaven, which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pecks of flour until it was all leavened." I believe that this passage depicts the power of Christ. Things that would be considered bad under normal circumstances become amazing things with a touch of Jesus Christ. Leaven, under all other circumstances, is considered bad. However, with the touch of Christ, it turns into something as amazing as the kingdom of God.

What I'm learning is this. Our millennial generation is like leaven. Under normal circumstances, being a millennial is like leaven. Our generation is guilty of squandering amazing opportunities and privilege that previous generations never had. However, with the touch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I'm coming to realize how amazing this generation of students can be. With a touch of Jesus in their lives, with the gospel transforming their hearts, I'm coming to the firm belief that this generation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world for Jesus Christ. Under normal circumstances, millennials are entitled, selfish, unfocused and lazy. However, the gospel of Jesus Christ brings forth vision that unlocks amazing potential in this generation.

So, as this first year comes to an end and another begins, I'm excited to see where our generation can go with the gospel. As I've been given the privilege to oversee Orison Ministries, I humbly ask our church for continued prayer that students would be touched by the gospel of Jesus Christ. I ask that our church would continue to pray for and partner with this generation of millennials this coming year to further the gospel throughout school campuses in New York! We're so thankful for the constant support of our KAPCQ and QPEM family and we're looking forward to partnering in ministry and in life this coming year! As we continue on in journey of gospel-centered movements, we pray for our church, our Flushing community, and the world.



특집

在11355兴起复兴的火烟... 11355에 부흥의 불길이...

손명금 집사



새가족학교를 졸업하는 새신자들

上帝很久以前开始预定,计划法拉盛地区. 现今法拉盛地区吹起了移民的风暴,让中国华人和中国朝鲜族像云堆一般拥挤过来.

3年前,上帝赐给金星局牧师对多民族的福音化和世界宣教的异象,开始要成立中文堂时,感谢神带领陈玉捷传道来韩中长老教会,2014年11月开始准备敬拜,2015年1月第一周终于打开了中文堂的大门. 并且十年前,上帝也引导身在中国的黄海玉传道的脚步到韩中长老教会,通过黄传道的完全的牺牲和侍奉,很多中国朝鲜族拥有了自己的信仰,也为了中文堂崇拜的开始同心合力地为神效力.

20多名开始的中文堂,在共产党的国家听不到福音,没有盼望的中国华人听到了福音的盼望如鹿切慕溪水,一个接着一个归向主的怀里敬拜神. 感谢主!我们中文堂信徒们每周六都拿着福音单张去缅街街头布道,并且陈传道热情的讲道敬拜主日,礼拜结束之后在地下体育场参加主日学,参加周二查经班,周三祷告会,周四和周五各区组敬拜,青年部团契,还有各种小组聚会. 另外三月份中文堂为了全教会的复兴,弟兄姐妹们积极参与守望禁食祷告,感谢主!

神预备的奇迹般复兴的火烟在短短的两年以来,3月5日中文堂开始了第二堂崇拜. 中文堂每周有300多名的灵魂到神的圣殿来分一,二部敬拜. 3月12日,在主的莫大的恩典之下105名参加了新朋友毕业典礼,还有40多名的信徒也报名了第二届的新朋友班.

如今,中文堂的复兴的火焰继续扩展. 希望接受盼望福音的兄弟姐妹被精练之后拿着福音,从法拉盛开始到中国大陆,走遍全世界. 愿在11355 兴起复兴的火焰向全地扩张,也愿我们中文堂的弟兄姐妹们最大的努力和热情来敬拜我们的上帝.

感谢主!

하나님께서서는 오래 전부터 후러싱 이 땅에 예정하심과 크신 섭리가 있었다. 후러싱에 이민의 바람이 크게 불어 중국사람들과 중국교포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3년전, 하나님께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께 다민족을 향한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천위제 전도사님을 권장에 보내사 2014년 11월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2015년 1월, 첫째 주부터 중국어 예배를 시작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중국에 계셨던 황해옥 전도사님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권장에서 훈련시키셔서 황전도사님의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많은 중국교포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중국예배 시작에도 함께 동참하게 하셨다.

20여명으로 시작된 예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모르고 소망없이 살아가던 중국인들에게 소망의 복음이 전해지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한영훈, 한영훈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왔다. 중국어예배부 성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단지들을 들고 메인스트릿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열정적인 천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며, 예배후에는 지하 체육관에서 주일성경공부, 화요일에도 성경공부, 수요일에는 기도모임을 하고 목, 금요일에는 구역예배, 청년부모임을 비롯한 각종 소그룹모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3월달은 교회부흥을 위해 중국어 예배부에서 릴레이 금식기도로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짧은 2년동안에 3월 5일, 2부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300명이 넘는 영혼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1, 2부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3월12일에는 주님의 은혜가운데105명이 새신자 졸업식에 참가하였고, 그리고 40여명의 성도가 제 2기 새신자반에 등록을 하였다.

중국예배부의 부흥의 불길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 소망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훈련을 받아 후러싱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중국대륙에 복음을 들고, 아니 전 세계로 복음들고 갈 것이다. 우편번호 '11355'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온누리에 확장 될 그 날을 꿈꾸며 최선과 열정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中文堂服事中的感想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중국어예배부

- 陈玉捷传道 (천위제 전도사)

“末后的日子, 耶和華殿的山必堅立, 超乎諸山, 高舉過於萬嶺; 萬民都要流歸這山. 必有許多國的民前往, 說: 來吧, 我們登耶和華的山, 奔雅各神的殿. 主必將祂的道教訓我們; 我們也要行祂的路. 因為訓誨必出於錫安; 耶和華的言語必出於耶路撒冷.” 以賽亞書2:2-3. 阿門! 在這末世的時候, 上帝的殿, 神的教會必被高舉超越世間所有的宗教、學問、人文、道理, 要吸引千萬罪人歸向神. 人們要說, 來吧! 我們一起去教會敬拜神, 因為那裏有上帝真實的話語, 使我們能夠行在生命的道路上. 神的話語吸引罪人的心, 因為聖經乃是為耶穌基督作見證的.

“你們查考聖經, 因你們以為內中有永生; 給我作見證的就是這經.” 約翰福音 5:39. 當教會傳揚真理, 教導聖經, 宣告真道時候, 耶穌基督就被見證出來, 耶穌基督就被高舉起來. 當主被高舉的時候, 萬民就被祂來吸引. 主耶穌說: “我若從地上被舉起來, 就要吸引萬人來歸我.” 約翰福音 12:32. 耶穌基督被舉起, 就是為贖罪人被釘死在十字架上, 這也就是我們的救恩. 當我們傳揚基督的救恩, 千千万萬的罪人會被聖靈感動, 引導歸向神. 今日教會若傳揚以耶穌基督為中心的救恩, 不偏左右, 不刪除, 不加添, 只忠心的單單傳揚、教訓神純全、全備的救恩, 聖靈必開啟罪人的心竅、光照罪人的心靈、引導罪人來到基督的面前, 使千千万萬的人悔改歸向神.

亲爱的弟兄姐妹, 我们要成为这样的教会, 一间传讲真理与圣灵同工的教会. 韩中长老教会蒙上帝恩待使用43年之久, 神已带领近万人来到我们教会蒙受恩典. 两年多前, 神兴起了中文堂事工, 也带领了数百华人来到了我们当中. 我们看到只要哪里有神的话, 哪里就有罪人的归向. 因为今日人里面真正的问题不是缺钱、不是缺食物、不是缺学问、不是缺知识、不是缺工作、不是缺身份等等, 而是缺神的话. “主耶和華說: “日子將到, 我必命飢荒降在地上. 人饥饿非因无饼, 干渴非因无水, 乃因不听耶和華的话.” 摩8:11. “不听耶和華的话”原文的意思就是听不见, 没有耶和華的话. 新译本的翻译是“而是因为听不见耶和華的话.”



亲爱的弟兄姐妹, 这个世代缺少神纯正的话, 异端纵横, 搅乱真道. 世界里各式各样的声音误导人走向错误的人生方向, 追求名利、地位、声望、健康、富贵、爱情等等, 使亿万的人们每日活在迷失里面, 天天走向死亡. 唯有神的话赐给人智慧, 唯有神的话苏醒人的心灵 (诗篇19:7), 唯有神的话赐给人生命, 因为神的话是我们脚前的灯, 路上的光 (诗篇119:105). “我的羊听我的声音, 我也认识他们, 他们也跟着我.” 约 10:27. 唯有神的话才会吸引、引导人跟从耶稣.

神的百姓啊! 让我们看重神的话胜过精金, 高举神的话超过一切的追求. “天地要废去, 我的话却不能废去.” 马太福音 24:35. 让我们韩中长老教会, 我们的中文堂, 继续以传扬基督耶稣为中心的福音, 教导上帝纯正的话为主要事工. 愿弟兄姐妹兴起参与各样的服事, 确保神的话每日都被传达出来, 使更多的迷羊归回父家.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2-3]. 아멘! 이 세상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성전, 주의 교회가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종교, 학문, 인문, 도덕보다 더 높히 들려져 수천만이 넘는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오라! 우리 함께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된 말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되고 또한 높임을 받게 되며,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이끌리게 된다. 예수

님께서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 12:32] 예수님께서 들리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보태지도 아니하며 오로지 그의 완전하심, 완전하신 구원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서는 죄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심령가운데 비추시며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천천만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권장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4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고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2년전, 하나님께서는 중국어예배를 부흥시켜 수백명이 넘는 중국동포들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질, 학문, 지식,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리고 신분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이다. “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8:11]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원문의 뜻은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번역성경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씌여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 시대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하여 이단이 득실거리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이다. 세상의 여러가지 소리가 명예를 좇아가게 하고 지위, 인기, 건강, 부, 사랑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수백 만명의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시 19:7] 주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기때문이다. [시 119:105]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사람들

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주의 백성이여, 주의 말씀이 금보다 이 세상의 추구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것을 보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퀸즈장로교회, 그리고 우리의 중국어예배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부디 형제자매들이 일어나 여러가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전파되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기도한다.

你起初虽然微小...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 황혜옥 전도사 (黄海玉传道)



妹们同心合力地为神效力。

通过全教会信徒守望祷告成立地中文堂，每周，每月让我们看到神的做工，体验神的奇迹。不仅让我们在人数和属灵上得到复兴，而且通过我们教会实现向多民族的展望，引导我们教会奔向全世界。感谢神给予我们莫大的恩典，不仅仅在人数上复兴我们，更是在属灵上复兴我们中文堂「...终久必甚发达。」(伯 8：7) 让我们抓住神的话。求神帮助我们能担当神赐给我们的使命，荣耀与赞美归于神。

담임목사님께서 다민족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중국어예배를 시작하자고 하시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벌써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예배가 날마다, 해마다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중국어예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wig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중국어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거룩한 부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욥 8:7) 는 말씀을 주심으로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언어적으로는 중국에서도 중국어를 몇마디 밖에 하지 못하며 살았고, 문화적으로도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번도 중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저는 중국 교포청년 몇명과 함께 매주 주일예배 후에 중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점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수 있는 길은 오직 퀸즈장로교회 43년의 아름다운 전통을 모델로, 보고 듣고 배운대로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온 교회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담임목사님과 중국교포 십여명, 그리고 천전도사님 가족과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1월 첫째주부터 중국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하여 그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화요일과 주일예배 후 성경공부,

구역예배와 전도회모임,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연합행사와 선교바자회, 새성전 건축바자회, 단기선교에도 적극 참석하여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고, 퀸즈장로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3월 5일, 하나님께서는 중국어 2부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셨고, 317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서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3월 12일, 매주 1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7주간의 새가족공부를 통해 105명의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어예배 성도들을 새가족공부를 통해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셨으며, 퀸즈장로교회를 더욱 알아가게 하고 다민족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중국어예배는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다민족을 향한 우리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온 교회가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중국어예배가 더욱더 숫자적인 부흥 뿐만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함께 이루어주셔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街头布道见证分享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何秀萍执事 (He, Xiuping 집사)



弟兄姐妹们，平安！感谢神给我这么好的机会来分享街头布道对我个人的生命造就。首先我感谢神带领我来到韩中长老教会，让我在这个教会里得到神诸多的恩典和祝福。时间过的很快，在这里我非常高兴告诉大家，我已经来到韩中长老教会两周年了。在这里我也特别感谢陈玉捷传道这两年的教导和帮助。让我真的从一个挂名的基督徒转变成为一个有使命的基督徒。为甚么这么说呢？先跟大家介绍一下我作为一个基督徒的信仰背景。我信主将近二十余年了。可是我却感觉非常的惭愧：因为在我在前十几年的基督徒生涯当中，我没有为主而活。我在这个世界里边的一切劳苦都是为了赚取更多的金钱，能够有更好的物质生活。一切都是我我我，耶稣只是我临时的圣诞老公公，当我需要的时候才搬出来抱抱，靠靠。虽然觉得亏欠神，但是我却无法从罪恶和魔鬼的诱惑中得到释放。可想而知我内心的挣扎和痛苦，我更是没有从基督而来的平安和喜乐。

经过这两年多的周二查经，我对街头布道开始有了负担，以前以为传福音是牧者同工的分内，岂不知我们信徒皆是祭司，都要扛起做祭司的分内。我记得有一次的周二查经让我印象深刻。记得那天查经的内容是关于旧约的以西结书第三章，经文中讲到神呼召以西结去劝诫以色列百姓从他们的罪恶中回转归向神。以西结代表了所有今天神的儿女们，还有我们当尽的本分。上帝启示他的众儿女百姓要传福音，因他们若不传福音，那些罪人因无知不认识神的罪就灭亡了，他们灭亡的罪就归到神众儿女身上。当天我知道神的心意后，以前我不传福音所找的借口都一一的呈现，历历在目，这些事使我胆战心惊。神的话语真是给我当头棒喝，虽然很痛，却是把我给敲醒了。当我还在恐惧战惊的时候，我的心里面却有声音对我说，如果不是其他基督徒向你传福音，你今天又怎能得救呢？感谢神，他不但把我给敲醒了，他也提醒我当初是如何蒙恩得救的。我知道自己再也无法躲避传福音的工作了。借着祷告悔改认罪，神兴起环境来加添我力量，让我顺利的参加2015年生平的第一次中国短宣。其间我真的受益匪浅，我看到全世界各地对福音事工殷勤的工作人员。当我听到很多弟兄姐妹的见证，他们的泪水，艰辛，和对神那无伪的信心，让我学会了感恩。神给我的实在太多了，他把我放在这么好的环境，衣食无忧的国家里，而我却没有活出他的旨意来。我不想活在亏欠和自责当中，当我立志要为神福音的事工摆上

的时候，神又预备三元布道课程来更好的装备我，让我学会了如何向人分享福音。

我感谢神让我有幸参与街头布道的事工。因为我以前是个很怕羞的人，不愿意在人前多说话，更何况是在街头那么多的人群当中传播天国的好信息。我无法想象如果没有神的带领我不可能坚持每周六的街头布道。参加街头布道打破了我以往活在与人隔绝的光景。我是一个内向不想与人打交道的人，现在我愿意为了神，挑战我自己，走出我生命中原有的舒服圈。在街道上第一次被人拒绝的时候我很受伤，陈传道告诉我们这些路人拒绝的是耶稣而不是我们。我开始为这些不知名的路人祷告，求神来怜悯他们。我也知道神为我们在十字架上所受的凌辱，耶稣基督为我们的罪被嘲笑，被鞭打，被羞辱，被剥衣服，被吐口水，甚至被钉死。神说人若在人前否定他不承认他，他在父面前也必不认他们。是的，想到历代历代的宣教士为福音的缘故舍生流血。我只是被人拒绝有什么可难受的。神一次又一次的使我在人前刚强壮胆的为他做见证。经过第二次，第三次。。。。。。的磨练，现在路人的任何反应已不再影响我了。记得有一次路人当面骂我们说，“你们这些人都是被宗教头领利用洗脑的傻子们”，这样侮辱人的话已不再让我生气了。我也开始学会去尊重那些在街上发传单的人。以前没做过街头布道对那些在街上发传单的人是不屑一顾，爱理不理，甚至觉得他们烦人，我还绕道走。现在我对他们多了份敬重和感恩。我会接过单张，告诉他们辛苦啦。最让我激动的是每次街头布道是有果效的，好多中文堂的会友都是接受福音单张后来教会的。听到了不同弟兄姐妹的感恩见证，说他们是因单张而来韩中教会，找到了家的温暖，并感受到了家人的爱让他们好感恩。

关于街头布道的好处希望大家跟我一起参加的时候，自己去经历和体会，因我们的神实在是又真又活的神。只有我们自己去经历，去体验的时候，才能真正知道他的丰富和荣美。希望看到我见证的人都能够成为我街头布道的好同工。让我们一起为福音事工奋发努力吧！愿荣耀归于我们至高的神。

성도 여러분 살롬! 노방전도를 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 가게 된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나눌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가 퀸즈장로교회로 온지 벌써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별히 2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천위제전도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구요? 일단 저의 신앙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은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고한 모든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물질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었으며, 항상 '나, 나, 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일시적인 산타할아버지였고 필요할 때만 찾고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죄악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의 갈등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화요일 성경공부를 하면서 노방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도는 목회자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성도인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화요일 성경공부 말씀내용은 구약의 에스겔 3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오늘 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그 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핍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앞에 떠올라 과거의 일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매 맞은 것처럼 다가왔고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제 마음 속에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주님은 저를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경을 통하여 새힘을 주셨습니다. 2015년 여름,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국단기선교를 순리롭게 참석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세계 각 곳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과 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서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빛진 마음과 죄책감 속에서 살

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자 주님은 또한 전도폭발훈련을 통하여 저를 무장시키고 준비시키셨으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하물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는 세상과 단절된 저의 삶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 자신에게 도전하고 안락한 저의 세상 속에서 걸어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방전도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저는 매우 속상했지만 천전도사님은 사람들이 거절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십자가의 능욕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조롱, 채찍과 수치, 그리고 옷을 찢기시고 얼굴에 침 뱀음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피 흘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절당한 것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고 계속하여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번, 세번의 훈련을 거쳐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의 그 어떠한 반응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에 길을 지나가던 한 분이 저희를 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세뇌당한 바보들이야." 이런 모욕적인 말들도 더이상 저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을 보는 척도 하지 않았고 귀찮아서 길을 빙빙 돌아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분들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단지를 받고 "수고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일 저를 감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중국어 예배부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전단지를 받고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가족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의 좋은 점들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저와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체험할 때 비로소 그분의 풍부함과 영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보신 분들은 모두 노방전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街头布道见证分享 主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 马佳姊妹 (Ma, Jia자매)



弟兄姐妹们平安! 我是中文堂马佳, 刚来到中国不久, 但这次机会能跟大家分享街头布道的恩典, 感谢主! 感谢神带领我在2015年9月来到韩中长老教会, 对查经班的渴慕和热爱留下来成为稳定聚会的会友之一. 并且以门徒培训和三福布道培训装备了我, 使我一步步走近他, 了解他的爱和救赎以及他对信徒的期待和所赋予的使命。

在成长的过程中, 因为个人比较宅, 除了查经班别的时间都懒得去教会. 感谢这些背后支持和祷告的人, 激励着我由单单参加查经班到主日崇拜, 祷告会, 团契, 布道都不缺席. 在这里, 我的属灵生命得以建造。

第一次参加周六街头布道是和Shirley一起的, 她耐心的教导我示范给我看, 对每一个路人友好的问好后发送教会单张并邀请对方来教会, 也会详细的为路人解惑, 即使被拒绝也是微笑对待. 她的爱心和谦卑让我学到了很多. 布道的时候会有路人问我们发单张一个小时可以拿到多少酬劳, 我们常常笑而不语. 因为相信神会记念一切的摆上, 而我们的付出也完全是心甘情愿的, 快乐的. 有一次, 一位女士拒绝了我的单张, 然后讲了她的故事: 她初来美国的时候, 家人患了重病急需用钱, 她的老板是基督徒, 发现她的需要后预支了她的工资应急, 她很感动, 也很感激. 中国有一句谚语: 送人玫瑰, 手留余香. 一个善意的动作或者话语所产生的功效是我们完全无法预料的. 我们对别人发出的邀请, 可能对对方当时没有兴趣, 但是神会保守结果。

2013年夏天, 我在郑州大学第二附属医院实习, 一位郑叔叔向我传福音, 并且为我做了一个简短祷告. 当时我并不懂, 也没有兴趣, 他送了我一本圣经, 之后再也没有遇到他. 我读了创世纪前5章, 觉得这书有趣, 然后神带领我来到美国, 再来到了教会. 这个见证希望能够鼓励弟兄姐妹们, 如果有机会我们要尽力刻意传福音, 即使只是一句耶稣爱你, 即使对方当时没有接受, 但是总有一天神会打开他们属灵的眼睛, 让他们清楚地知道罪和救赎。

未信者的心好像洋葱, 你剥一层, 我剥一层, 总有一天神预定的时间到了, 他就会认识主, 认识救恩, 我们需要做的只是剥开. 曾经看到主日程序表有一篇文章: PUSH-pray until something happen. 神希望我们做的只是推, 至于是否推得开阻碍, 这个结果, 是神亲自负责的." 我真是苦啊! 谁能救我脱离这取死的身體呢" (罗马书 7:19) "故此, 我所愿意的善, 我反不作; 我所不愿意的恶, 我倒去作" 我常常处于这样的属灵争战, 在很大的诱惑面前摇摇欲晃, 也有得胜, 也有迷惑, 最终仍会向着标杆奔跑. 我的朋友和家人大部分都是非基督徒, 在他们面前我很有压力, 稍有不慎, 就会听到这样的话: "...你可是基督徒... 基督徒这个词这个身份随时提醒我, 做事之前考虑一下是否能够荣耀神, 能不能形成见证, 传道说我们做事情要考虑这件事情是否荣耀神益人益己. 周六街头布道虽然只有2个小时, 但它更深远的影响到了我的生活方式, 提醒我作为一个基督徒传福音是应尽的本分, 会在工作生活中刻意介绍教会谈起信仰, 慢慢融合成为生活中的一部分。

在信主以前, 我的性情淡漠孤僻不爱讲话, 和认识的人相处3个月以上才会考虑做朋友, 信主以后, 既明白作为基督徒要努力传福音, 就会主动和别人建立关系, 关心对方的需要和感受, 尤其是弟兄姐妹, 在我眼里, 他们不再是陌生人, 而是一家人, 会主动的爱他们, 会耐心的倾听, 会以笑容迎接家人. 愿主继续使用我塑造我更

有基督的品格, 愿万民都认识我主并且单单尊他的名为圣, 愿所有的基督徒不管身在何方都可以刻意努力传福音直到主荣耀归来的那一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롬! 저는 중국어 예배부 Ma Jia입니다. 중국으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빌어 노방전도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공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저로 하여금 퀸장의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었고 한걸음 한걸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성도에 대한 기대와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성경공부외에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형제자매들이 있었기에 성경공부 뿐만 아니라 주일예배, 기도회 및 여러가지 친교모임, 노방전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영적생명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토요일 노방전도에 Shirley 와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내로 저에게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친절하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인사하고 복음 전단지들을 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간혹 물어보는 행인들의 질문에도 그는 상세하게 대답해 주었고 거절 당했을 때에도 웃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저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끔 노방전도를 하다보면 전단지를 나눠주면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보는 행인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자원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어떤 여자분이 전단지는 거절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금방 왔을 때 가족이 큰병에 걸려서 급히 목돈이 필요했는데 크리스찬이었던 사장님이 그의 사정을 아시고 주금을 미리 선불해 주셔서 급한 일을 잘 해결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감동하였고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속담에 "The roses in her hand: the flaver in mi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행한 작은 행동이나 말로 일으키는 효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즉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여름, 제가 정주대학 제2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을 때 정씨성을 가진 어떤 아저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면서 저를 위해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경 한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뒤로 그 아저씨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5장까지 읽었는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교회로 인도하

셨습니다. 만일 기회가 된다면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 일지라도, 상대방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당신이 한 겹, 나도 한 겹 벗기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도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벗기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주보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PUSH - pray until something happ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것은 미는것 뿐입니다. 장애물을 밀어 넘어뜨릴 수 없을지 없을지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저는 항상 이런 영적전쟁을 합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유혹을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가족들 대부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넌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항상 저에게 귀땀을

해주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간증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천전도사님도 항상 저희에게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는 고작 2시간이지만 저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었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일부러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전 저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싫어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3개월 이상 지나서야 사귀는 것을 고려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에는 형제자매가 더 이상 남이 아닌 한 가족이고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로서 귀 기울이며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더욱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빚으시고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위에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新朋友毕业见证 새가족 학교 졸업 간증

戴美佳姊妹 / Dai, Meijia 자매



亲爱的弟兄姐妹, 大家好! 我是中文堂的戴美佳, 我来到韩中长老教会快一年了。感谢神! 透过我的父母, 把我带到了咱们教会这个充满温暖、充满爱的大家庭。因着长辈弟兄姐妹的关心与爱心, 我不断地融入了教会的生活, 使我明白, 人活着不是单单为了自己。也因着神的爱, 使我的生命不断成长。未来的日子里, 求主亲近带领、眷顾与保守, 使我能够荣神益人! 阿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예배부 dai meijia자매입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에 온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대가족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르신들과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저로 하여금 교회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黄玲迪姊妹 / Huang, Lingdi 자매



大家好! 我是中文堂的黄玲迪, 和先生高金元是2015年5月来中文堂聚会的; 2016年8月, 我儿子一家五口、2016年10月我的亲家夫妇也都相继从中国出来, 随即也来到中文堂。非常感恩韩中长老教会, 给我们全家在美国提供了一个属灵的家, 现在我们一家大小9口, 有5人在中文堂参与事奉; 更加令人开心的是, 我的孙子、孙女跟我们一样热爱教会。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예배부 huang lingdi 자매입니다.

2015년 5월에 남편 gao jinyuan과 함께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 8월, 아들 다섯 식구와 2016년 10월 저희 사돈부부도 이어서 중국을 떠나 중국어예배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을 미국에서 다시 새로운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퀸즈장로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족 아홉식구 중 다섯식구가 중국어부에서 섬기고 있고,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손자와 손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林顺德姊妹 / Lin, Shunde 자매



大家好! 我叫林顺德, 来到韩中长老教会两个多月, 大概15年以前, 也去过别的教会, 但是因为后事和上班, 就没有再去教会了, 前一段时间也去过别的教会, 但感觉不适。听说有一个教会, 有很多朝鲜族姐妹, 我就想去那个教会, 经打听后, 才知道是韩中教会。来到这个教会后, 去韩文堂那边做礼拜, 但由于对韩文不是很理解, 每次去没有得恩典。

有一天中午吃饭时, 有位兄弟说, 中文堂那边陈传道讲得非常的好, 举例子恰到好处, 我的眼前一亮, 决定下星期去中文堂。当听到陈传道讲解圣经, 我心中的大门完全被打开了, 每次礼拜都得到上帝的恩典, 大概来中文堂两个星期后, 在梦中突然遭到魔鬼, 喘不上气来, 我看到魔鬼的鼻子离我很近, 我就使出全身的力气咬住了魔鬼的鼻子, 并喊道: ‘我父, 主啊。’魔鬼松开双手, 跑掉了, 知道是主救了我。过了两个星期, 陈传道讲到了我们是罪人, 但我以前不清楚到底我们怎么是罪人, 主听到人们的焦虑, 不安, 嫉妒, 害怕等等... 我才知道, 这不就是说我吗, 我原来有这么多罪, 眼泪就止不住的流了下来, ”主啊! 我就是个罪人”, 洪水般的眼泪不停地流, 我也被吓到了, 从来没有过的感觉。之后, 感觉很轻松, 向主忏悔了我的罪责。

虽然我的信仰之路还很遥远, 还要多学圣经, 但是已经坚定了, 上帝是存在的。还有经过七周的新人培训班的学习, 我学到了很多。感觉主引导我来到韩中长老教会, 让我得到很多知识和主的恩典, 还要感谢陈传道讲解得非常清楚! 谢谢!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lin shunde입니다. 퀸즈장로교회로 온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15년전에 다른 교회에 가본 적도 있었지만 많은 일과 직장으로 인해 더 이상 교회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로 나간 적은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조선족자매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와보니 한중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와서 먼저 중국어예배를 드렸지만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중국어부에서 천전도사님이 예를 적당하게 들면서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하자 갑자기 저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중국어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천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매주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중국어예배를 드린 2주 후 어느날 꿈에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마귀의 코가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자 온 힘을 다해 마귀의 코를 물고 ‘나의 아버지 주님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자 마귀는 두 손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2주 후, 천전도사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 불안, 질투, 두려움등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죄가 있던 말인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눈물이 흥수와 같이 계속 흘러 전에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후로부터 저는 홀가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길은 멀고 성경도 더 알아야 하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7주간의 새신자공부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세하게 전해주시는 천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项漪姐妹 / Xiang, Yi 자매



来到韩中长老教会整整一年, 在中文堂成立二周年之际非常有幸参加七周的第一届新朋友班的学习, 使我对教会的历史背景, 架构有了全面的了解。我信主多年但有时候只是把教会生活当作一种习惯而已, 对主耶稣的爱和渴慕就不那么强烈, 这次借助学习耶稣的生平又重新挑起我里面爱耶稣的热情。记得有一节课放了一段耶稣钉十字架的视频, 我边看边哭, 心如刀割, 每一鞭子抽在耶稣身上就像抽在我身上一样, 以前从来没有过这种感觉。主耶稣为我的罪被钉, 受死埋葬, 第三天复活了, 我当下宣告我要将我的旧人老我与耶稣同钉十字架, 活出耶稣复活的生命, 我愿为主耶稣兴起发光, 成为一个被主大大使用合神心意的器皿。为教会的牧师传道长守望祷告, 求神复兴每个信徒的生命, 兴旺教会。

퀸즈장로교회로 온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중국어예배부 2주년을 맞아 제 1기 새신자공부를 7주간을 거쳐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새신자공부를 통해 교회의 역사배경과 구조등을 전면적으로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지 벌써 몇년이 되었지만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배우면서 또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수업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얼굴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 번씩 채찍에 맞을 때마다 제 몸을 때리는듯 아팠습니다. 전에는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되었다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빛이 되어 주님 마음에 합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NAVRUZ ”

- New Year According to The Natural Calendar -

송요한 목사



“NAVRUZ” Celebration

Novruz is Celebrated in the East on March 21 - day of spring equinox, when Nature naturally wakes up when the day is equal to the night and with each subsequent rotation recaptures several minutes in favor of light, When a new round of renewal begins and the New Solar Year begins. On the day of the spring equinox, a new Sun is born and the Earth wakes up (it's not for nothing that the day of the Earth is celebrated on March 21).

Novruz is now widely celebrated as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in Iran and Afghanistan, as a state holiday in Tajikistan, Uzbekistan, Kyrgyzstan, Kazakhstan, Turkmenistan, Azerbaijan, Albania, Iraqi Kurdistan, India, Macedonia, Turkey; And also in the south of Russia: in Tatarstan, Bashkortostan.

The traditions of the celebration of Navruz almost did not change for all its centuries-old history. Preparations for the holyday are very serious. People are cleaning houses, yards in advance, wash there closes and paying all debts. On the eve of the holiday before the sun rises it is necessary to complete all the preparatory efforts: preparation of festive meals, cleaning of housing and the decoration of rooms with flowering branches of trees

The most important day of the holiday is the first, on March 21. On this day it is customary to cover a festive table and treat all friends, neighbors and everyone with "New Year's" meals, the main of which are Khalisa and Sumalak (they are prepared only once a year - at Navruz). Khalisa is prepared from seven kinds of cereals with the addition of meat, and everything boils down to a state of homogeneous mass. A sumalyak is prepared from sprouted wheat grain with the addition of flour and sugar. Usually people Begin to prepare these complex dishes on the eve of the holiday. All women of a large family, the community (in the modern conditions of high-rise buildings - neighbors) gather around large boilers and all through the night they stir the dish in order not to let it burn on a wood-burning fire. Often, a number of small stones are placed on the bottom of the boiler, not as a seasoning, of course, but in order to stir better and not to let burn the thick ritual dish. It is believed that if someone accidentally gets a "lucky" chock , then it is sure to be luck in the New Year. To ensure that the long and time-consuming process at the fire does not turn into a tedious duty, it is accompanied by music, songs and dances, thus starting a merry New Year's Eve. And in the morning every woman carries home her share of the common festive dish.

Since the community of the parishioners of the Russian-speaking church -"Queens all nations" consists of representativ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Navruz for us, in addition to everything else, is an opportunity to invite, meet and get to know a large number of our compatriots, as well as to share to those who have not yet Heard nothing about this beautiful Eastern holiday. For us, this is a chance to share this good and joyous spring day with more people and in such a favorable environment to share the word of God. Last year our Holiday was visited by more than 150 people. This year, we have planned to invite 200 people. We wish to spend this day in pleasant communication and fun with each other. After all, we always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each other.

노브루즈 (Novruz)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서 아시아와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매년 양력 3월 21일경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봄이 찾아오는 춘분에 시작되어서 13일간 진행되는 신년 축제로 특별히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이 시작되는 것을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서 춘분을 설날로 지낸다.

노브루즈는 현재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의 남쪽과 타타르스탄과 바스 코르트스탄에서 지키는 축제로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이라크 쿠르디스탄, 인도, 마케도니아, 터키에서 주요 공휴일로 지킨다.

노브루즈 기념 전통은 수 세기의 역사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날을 위한 준비과정은 대단히 진지하다. 사람들은 집과 마당을 청소하고, 옷을 단정히 하며 모든빛을 청산하고, 축제 음식, 집안 청소, 꽃과 나무로 집을 꾸미는 것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하루 전날 해가 뜨기 전에 끝내어야 한다.

노브루즈의 가장 중요한 날은 3월 21인 첫 날이다. 이 날은 친구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반기고 칼리사 (Khalisa)와 수말락 (Sumalak)이 메인인 새해 음식으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전통이다. 칼리사는 7가지의 곡물과 고기로 만들어지며 모든 것을 함께 넣어 끓인다. 수말락은 짙은 밀과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잡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노르즈 전날을 시작한다. 대 가족에 속한 모든 여자들이 큰 아궁이 주변에 모여 밤새 음식들이 장작불에 타지 않도록 젓는다. 잘 저으면서 음식들이 타지 않게 하기위해 종종 많은 작은 돌을 아궁이 바닥에 놓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행운의 사례”가 걸리면 새해에 행운이 따를거라고 믿기도 한다. 이 길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 지루한 의무가 되지 않도록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새해 전날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매일 아침 축제 음식을 이웃들과 나눈다.

페르시아제국에 속했던 중앙 아시아 나라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여왕”이라고 한 이후로 이 노브루즈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동포들을 초대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것 뿐만이 아닌 이 아름다운 동쪽의 기념일을 들여보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 복음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에게 있어 노브루즈는 호의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지난해 노브루즈를 기해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행사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올해에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우리는 이 날 즐거워하며 열린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우리 하브루타 할까요? ”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 허정문 목사님과의 간담회를 갖고

홍한나 권사



소위 교육열이 높다 하는 강남 8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는, 이미 30여년전이지만 미국 명문대 졸업생인 원어민 교사로부 터 영어 수업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원어민 교사가 주도하는 영어 수업이 있었고, 나머지 수업시간은 독해와 문법을 배우는 전형적인 한국 영어 교수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부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학생들이 선생님만 바라보는 교실의 책상 배열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50여명의 학생들이 4명의 그룹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영어퀴즈를 풀고, 그룹별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교실은 그야말로 시끌벅적, 살아있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수업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교장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수업방식을 바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기간제 교사였던 원어민 선생님은 교탁앞에서 녹음기가 되어 학생들에게 "Listen and repeat after me!!" 를 외치며 영어책을 읽어주는 걸로 영어시간을 때우셨습니다. 비록 짧게 맛보았지만, 그 때 느꼈던 영어학습의 즐거움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즐기는 공부,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 이것이 3,500년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의 교육 철학인 토라 리쉬마 (Torah Lishmah)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육의 핵심에는 하브루타 (Havruta)라는 학습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전 허정문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허정문 목사님과의 간담회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 교역자님들과 교회학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허정문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히브리대학, 보스턴 칼리지를 거쳐 현재는 뉴욕 예쉬바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날의 간담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토라 리쉬마란 “토라 자체를 위한”(for the sake of Torah)이라는 의미로, 크게 세가지로 그 사상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훈과 계명을 따라 율법의 실천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의 나라에 대한 열정, 즐거움과 같은 영적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자 그대로, 토라 자체를 위한 공부, 즉 공부 자체가 유익이요 보상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에서 찾고 깨달아 따르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형통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2)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학습법이다. 유대인의 창의력은 바로 하브루타에서 시작되었다. 이

것은 성경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주어진 본문 내용을 가지고 상대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비평적, 창의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며,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거쳐 의견의 오류와 실마리를 찾아가는 변증법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하브루타이고, 가정에서 식사하며 가족끼리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하브루타이다. 좀 더 깊이있게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암송한 후 거기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다. 암송한 구절의 단어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구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성경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진리를 증명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한다. 찾은 구절들 중 하나로 설교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한 구절을 각색해 콩트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3) 탈무드는 1천년 동안 토라를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수집, 편찬한 책인데 이미 엄청난 분량임에도 아직까지 이 책은 끝이 나지 않았다. 탈무드는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백지로 남겨두었다. 첫 페이지의 여백은 독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페이지의 여백은 ‘오픈 엔드 (open end)’를 의미한다. 즉 시대에 따라 새로운 말, 새로운 견해가 첨가되기 때문에 끝맺음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말씀 연구와 학습에 끝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4)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의 토라 리쉬마는 탁월한 교육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혜를 거부한 반쪽 지혜, 반쪽 진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탈무드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온전한 말씀과 학문 연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공부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리쉬마 정신이다...

다음세대의 신앙교육과 말씀교육은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지도자나 교사들, 그리고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는 늘 고민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말씀교육에 힘써 왔지만, 과연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즉 성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고 있는지 지금의 교육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쉬마 사상과 하브루타가 교회 교육의 대안으로, 더 나아가 교회학교의 미래는 여는 돌파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브루타의 목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삶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학교 사역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될 우리교회 토요학교에서는 하브루타가 교과과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씩 실천하다보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행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다음세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 곳곳에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우리 하브루타 할까요?” 라는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길, 그리고 그 축복이 교회 담장을 넘어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초등부 겨울수련회 스케치



Romans 8 / Love the Word

“Sang teacher, what’s the theme for the retreat this year?/ Romans 8- Love the Word. Eww~ Romans 8? Can we do something fun this time? Of course we can. You’ll see, we’ll have so much fun this year.” 한 학생이 박상용 집사님에게 물었다. 이번 수련회 theme은 무엇인지. 그리고는 바로 또 말하고 묻는다. 싫다는 표현이 바로 나온후 하는 말은 - 우리 이번에 재미있게해요~

그렇다. 이번 초등부 겨울 수련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로마서 8장과 한 학생이 하는 질문의 만남이었다. 수련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듯이 준비 미달이다. 무엇을 빼놓으려던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planning면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참 재미 있는것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고 한다. 왜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수련회는 많이 아이들이 함께 하였다. Again 또 매번 그렇듯이 수련회 전날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수련회 당일 함께하게 된 아이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수련회를 처음 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간증도 처음 갔던 아이들 중에서 골라골라 2명을 추천 받았다. 그리고 여름수련회까지 못기다리겠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수련회 theme은 Romans 8 이었는데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한 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재미있는거 하자고 했는데 아이들 모두가 참 재미있었다고 또 가자고 또 하자한다. 무엇일까? 왜 일까? 하나님의 은혜다. 겨울 수련회는 여름과



양성국 교사

달리 2박3일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좀 짧다. 이번 수련회도 그랬다. 좀 짧았다. 아이들도 너무 짧았다고 한다. 짧은 이유는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뜻이다. 로마서 8장을 수련회 theme으로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외우는 시간들이 많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돌아와서도 로마서8장을 다 외우게 하려는 목표로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래서 3월 한달을 그리 목표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게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연장선이다. 힘이 난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 나보다.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외우고 또 팀별로 쓰고 또 그 같은 본문을 몸으로 팀별로 skit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듣는 연습을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포괄적인 학습이 아닌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갖고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말로 표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린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련회에서 중요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바로 라면. 아이들은 라면을 무척 좋아한다. 맛있기 때문에?? 아니다. 집에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서는 보통 밤마다 주는 라면을 성경 암송을 해야만 줬다. 암송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아이는 라면을 못 먹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HOT 한 아이였었고 가장 HOT 한 아이디어였다. 라면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불쌍해서 하나 주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아이들 머리에 들어갔다. 지금 이 나이때 들어가는 성경은 돌에 새기는 거와 같다. 성령의 도움심이다. 앞으로도 라면은 꿈짜는 없다.

이번 수련회 때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였다. 바로 교사 한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 떠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해주면서 기도의 바람이 불어 교사들과 함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였다.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복이다. 말씀을 사모하며 외우고 듣고 쓰고 가까이 하려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릴 하나로 묶어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증

The Holy Spirit is God

Christina Rekatas

I felt happy and excited to go to the retreat. I felt excited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going to the retreat.

When we had worship, we learned about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means not being guilty. We also learned abou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God. I prayed everyday. I prayed about following Gods words. I prayed about not being guilty. I prayed about going to the retreat to have fun but, also focus on God. If you are guilty, that means you do bad things. If you are not guilty, that means you follow Gods words. If you read the bible and pray everyday, you are always with God. I missed my parents, but I had fun and had a good worship.

This retreat changed my life because I never been to a retreat before. Also, I never celebrated God three days in a row. I had a good time learning about the Holy Spirit and No condemnation and I also had fun meeting new friends. I had fun, but I focused to stay with God. I felt not lonely. I feel brave now. The Lord is protecting me.

간증

Never Doubt The Power of GOD

Daniel Anbinder

Hello, my name is Daniel Anbinder I'm 10 year's old, and I'm from Staten Island, New York.

First of all I just want to say God brought me to the 2017 Winter Junior Retreat for a reason. God filled me with a multitude of blessing throughout this retreat.

I want to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where I didn't want to go. I prayed nights not to go to the retreat but God didn't answer my prayer and looking back I'm happy he didn't answer it. My Mom and my Grandparents prayed for me so I went to the retreat.

The first sermon really touched me Pastor Kim really showed to us God loves us in Romans 8:1 it said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in Christ Jesus"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This verse showed me' that no matter what we do, God will always love us, even if you think about it more deeply God gave his only son Jesus for us little micro-organisms in front of God. While listening to Pastor Kim's sermons, I really started to realize why God brought me to this retreat.

God can do unexpected things at a unexpected time, when you dig yourself into a spiritual hole. God will always lead you out somehow. God will lead you out and it will be in a supernatural way. As Christians we cannot doubt the power of God, again God is supernatural and he does things in supernatural ways, all we have to do is believe, believe in the power of God.

I also don't want to forget how much fun I had. We played 2 fun games and we also went swimming in a indoor pool. I want to thank all the teachers for their time with us. We all have to agree, we all have 1 life. This is one of the many reasons I want to thank the teachers and God for bringing the teachers to spend time with us. I want to thank everyone reading this, and whoever is reading my message to you is never doubt the power of God, as I said God can do unexpected things at an unexpected time. Praise God, that God brought me to my first ever Junior retreat and my first ever retreat in general. I wouldn't be writing this if it wasn't God's supernatural power that brought me to this retreat.

I'm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 same blessed time in the 2017 Summer Junior Retreat.

Thank You.

재정칼럼

준비되어 계십니까?

- 생명보험의 종류 - 이정훈 집사

생명보험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고 사랑 하는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플랜은 무조건 좋고, 어떤 플랜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닌, '나에게 적합한한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한가지 플랜의 구입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보장+완벽한 은퇴준비'까지 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불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은퇴준비까지 완벽히 커버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축성 생명보험 플랜등을 통해 은퇴시 혹은 비상시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가능합니다. 은퇴준비를 위해서는 401k 혹은 IRA등의 맞춤형 은퇴플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정상품이 바로 생명보험의 사망 보험금입니다. 재정관리에 뛰어나다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생명보험 구입을 유산상속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크게 기간성 상품 (Term Insurance)과 투자성/저축성 상품 (Cash value가 쌓이는 Index, Variable 등등의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재정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이 달라집니다.

기간성 상품

* **Term Insurance:** 가장 많이 들어보신 '기간성 상품'으로, 가입기간 동안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커버됩니다.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커버됩니다. 가입 희망자가 고령일 경우 가입 자체가 거부되거나, 혹은 가입기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종류중 가장 저렴한 플랜으로, 아직 아무런 생명보험 플랜이 없으신 비교적 젊은 분들이 기본장치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합니다.

* **Term ROP (Return of Premium):** 위에서 소개해드린 Term Insurance와 동일한 방식의 플랜이지만, 가입기간 종료와 함께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방식의 플랜입니다. 보통의 Term Insurance보다는 월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넌 만큼은 돌려받게 되는 장점'으로 인해 선호되는 플랜입니다.

저축성 / 투자성 상품

* **Universal Life:**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는 Fixed UL,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되는 Variable UL, 주가지수의 변동에 의해 수익을 얻는 Index UL등이 있습니다. Fixed UL의 경우 수익률은 낮지만 '보장'이 되는 장점으로 인해 특히 유대인들이 유산상속 수단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Variable UL의 경우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투자 등락폭이 클 확률이 있는 반면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Index UL의 경우 위의 두 가지 플랜을 합친 개념으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수익률을 기대하며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이자를 받게 되고 하락할 경우에도 원금에는 마이너스 적용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Fixed UL의 경우 유산상속 수단으로, Variable UL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투자 지식이 있는 경우에, Index UL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투자를 원하는 중장년층 고객들에게 추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플랜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관한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좋은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전문가란, '특정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장단점을 정확히 설명하여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4월이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채현주 권사



장학금 수여자들

퀸즈장로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 올해도 변함없이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음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신앙적 인재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이 신앙의 기초 위에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이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선포하게 하였고, 구원과 전도, 다민족 선교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깨닫고 그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개혁신앙과 관련된 서적 3권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내용을 숙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를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다음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 신앙을 잘 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심사 및 절차

1.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걸쳐 접수하였습니다.
2. 신청서 마감후 장학위원들의 개인적 친분이나 편견없는 공정심사를 위해 실명을 가명으로 변경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3. 심사 기준은 학교 성적 (40%) / 에세이 (40%) / 교회 출석과 참여도 (10%) /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과 각종 시상내역 (10%) 이 항목들 외에, 신청자의 장학금 필요 이유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4.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번 에세이는 개혁신앙을 담고 있는 서적을 읽고 제시한 문제에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장학위원회와 교육부 목사님,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선정된 3권의 책은 1) 마틴 루터의 생애를 기록한 [Luther Echoes of the Hammer], 2)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 Robert Godfrey가 삶의 여정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An Unexpected Journey], 3) 차세대 개혁주의 목회자로 주목받고 있는 Kevin DeYoung이 성경의 권위와 특성

- 을 저술한 [Taking God at His Word]라는 책입니다. 에세이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장 전개 설득성 (Development of position)
 - 체계성 (Organization)
 - 언어 사용의 적절성 (Use of Language)
 -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 문법과 단어 사용 (Grammar and word usage)
- 위의 말씀드린 항목 외에 에세이의 내용과 분량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주어진 주제에 맞게 접근했는지, 감동과 설득력 있게 서술했는지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했습니다.
4. 신청자를 각그룹별(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대학원생)로 분류하여 채점을 하였습니다.
 5. 채점 후 각 그룹 상위 40~50%의 학생을 선별한 후, 심사위원 전원이 다시 한번 선별된 학생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6. 위의 절차를 통해 선발된 24명의 학생들을 장학 위원장과 지도교역자와 심사에 참여한 4명의 장학위원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의논, 합의함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출된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것은 오늘 여러분이 받게되는 이 장학금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아니면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외식이나 선물을 주고 받는 대신 가족기념 장학기금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치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장차,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장학 헌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는 가장 가치있는 투자이며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할 마땅한 헌신입니다.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도리어 더 뜻 깊은 일에 동참하며 사랑을 나눌때, 그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하나 모아진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큰 쓰임을 받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에세이

하나님 말씀의 4가지 특성

심오섭 청년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함, 명백함, 권위, 그리고 필요성입니다.

첫 째로, “충분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만으로”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정보 없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 입니다. 한 예로,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 아이가 나올 때 설명서가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키우는 건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시고 태초부터 친히 알려주시고 성경에서는 잠언만 봐도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키워야 하는지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는 부인을 사랑하라고 하고 부인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뿐 아니라 사실 많은 문제들의 답은 정해져 있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서 읽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부족함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네 우리는 우리들의 의견이 우리들의 경험을 더 앞세울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구해야 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말씀은 “해석”하기 보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이 글을 읽게 된 계기가 된 장학금 수여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부지불식간에 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받는 저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권위가 두 가지의 책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신약” 과 “구약”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결국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온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목적을 원하며 삽니다. 영원히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등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게 된 자들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꾸준함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을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던 모세처럼 세워 주시는 분들이 있어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Thank You

먼저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가치있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 장학금 수여
Scholarship Award Ceremony
奖学金颁发
Вручение стипендий
-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예배
11월 23일 (토) 오후 7시
- 청년 선교부 : 조희주, 이승이, 송수진, 박새암, 이 나
 - 청년대학부 : 심오섭, 홍수아(QPEM), 박재상, 송승우, 임이슬, 조한결, 신예지, 정연지(QPEM)
 - 고 등 부 : 조은빈, 정희진, 이하은, 이우주, 소윤종, 최승혜, 김지명, 김민수.
 - 중 등 부 : 김호중, 마리아 송, 최종린

감사의 글

Glory be made known to God!

김호중 중등부 (Christopher Kim)



“For what thanksgiving can we return to God for you, for all the joy that we feel for your sake before our God” (1 Thessalonians 3:9) I am honored to be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2017 KAPCQ Scholarship, and would like to thank the church for their generous scholarship to me and my peers for continuing our studies. But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providing us for what we have and what we do not have. He has provided for me and will continue to do so as I strive to make a Christian footprint in this world. Growing up in a less privileged community has not only offered financial challenges, but it has also helped me to realize the value of a great education. Due to the church's generous scholarship, I am able to travel to a prestigious boarding school and study there.

This year's assignment was to read Susan K. Leigh's Luther: Echoes of the Hammer and to reflect upon it. Reading this book enlightened me to know my job as a Christian in the modern world today. Luther was asked again to recant his teachings and writings in front of Emperor Charles V. However, Luther still does not recant because he does not see proof against his theses that would make him to recant. He states at the Diet of Worms, “Unless I am convinced by Scripture and plain reason - I do not accept the authority of the popes and councils, for they have contradicted each other -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I cannot and I will not recant anything for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God help me. Amen.” The only way that he would recant, was if they could find in the Scripture, evidence that would prove his teachings wrong. However, nothing in the Scripture contradicted his work, it only supported it. Romans 10:9 states, “because,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ESV)” meaning that one would be saved if they truly believed that Jesus is Lord and had faith.

When I was reading this book, I found many messages that could apply to Christians in the modern society today. I believe that the message of persistence is a key one. Fighting for what he believed in Martin Luther stopped at nothing to try to get his message out to the people because he truly believed that the people should know that the Catholic Church was corrupt. He continued to write books, though he was told not to, and he following in his example, we should persist in delivering the Gospel so that the world may know Jesus Christ, and that they would be able to accept him as Lord and Saviour. Another principle that we can learn is to stand up for what you believe in. Modern day Christians tend to shy away when the topic of religion pops-up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they will be criticized. Luther did not recant in his teachings, he stayed firm in his belief even though he had a target over his head. We must learn how to proclaim the Gospel without having shame in what we believe in. I truly believe that these are both actions that we as Christians should take today.

Working as a volunteer in my community throughout my middle school career, I enjoy helping people learn about community services available to them. Currently, I am in the “Sweet Readers” program. There, I interact with Alzheimer's patients, and try to get to know the person behind the disease, because many people in my generation shun the elderly with diseases. While spending my time at the program, I learned that the Alzheimer's disease was incurable, and then I knew that I wanted to become a neurosurgeon. Know with the scholarship granted to me by the church, I can continue to pursue my dreams in being a neurosurgeon. I hope to be able to server in a position sometime in the future, where I might have even more of an ability to help less fortunate and under-represented groups. My educational pursuit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generous support from scholarship sponsors like the church. Thank you for enabling this opportunity and may all glory be made known to God!

성인대학 개강예배



2017년 봄학기 퀸즈 성인대학 개강예배가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퀸즈장로교회 친교실에서 있었다. 사회에는 김용생장로, 기도에는 허경화장로, 독주순서엔 김기호장로의 트럼본 연주가 있었다.

말씀에는 김성국목사님의 창세기 13장 9절~11절의 본문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선택은 신중히 해야한다. 선택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야하고, 영적으로 나의 성장에 어떻게 되는가에 의해 선택해야한다.

이 날 개강예배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100명을 훌쩍 넘는 숫자였다.

성인대학의 수업은 스마트폰 강좌, 생활영어반, 뜨게교실반, 미술교실반, 수지침반이 있다. 각 남녀 선교회와 취사부, 자원 봉사자들도 함께한다.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는 권장의 헌신 예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안나 선교회 헌신예배



3월 5일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겁고 깊고 오랜 기도의 어머니들이 모인 '안나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오인수 목사가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눅2:36-38)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모든 안나선교회 회원들이 아름다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선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라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었다. 설교후에 헌신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을'을 들으며 진한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린다.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예배



3월 8일 수요일 예배에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본문 창세기 22장 1절-14절로 김재형목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아브라함 선교회는 75세이상의 남성 성도로 구성된 선교회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시어 힘차고 은혜로운 헌신찬양을 하였다. 헌신 찬양은 '주 예수 보다 더 귀한것은 없네'였다. 특송으로는 아브라함 선교회 김기호 장로의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나' 트럼본 연주가 있었다.

사라 선교회 헌신예배



3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를 사라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인정 받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송요한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본문말씀은 요한3서 1:1-8 이었다. 사라 선교회원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모두 흰바지에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폴로티를 입었다. 젊고 발랄한 모습으로 예배전 준비찬양부터 모두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려는 모습이 은혜로웠다. 헌신찬양 순서에는 울동과 함께 매우 감동적이고 감동있는 찬양을 하였다.

아론 선교회 헌신예배



3월 22일 수요일 기도 예배에 아론 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18절로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소유영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첫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다. 내 안의 구원을 이루시는분은 하나님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려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한다. 셋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한다.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축복이 아론선교회에 있기를 축복했다. 헌신찬양은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를 찬양했다.

한나 선교회 헌신예배



3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를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다. 배인구 전도사가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3절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나 선교회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의 힘찬 찬양이 있었다.

모세 선교회 헌신예배



모세선교회 헌신예배를 3월 15일 수요일예배에 드리게 되었는데, 일일부흥회도 함께 갖게 되었다. 한국 광주 삼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 본문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3절이고 제목은 '변질 되지 않은 신앙'이었다. 모세선교회 회원들에게는 주님앞에 섰을때에 당당히 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했다. 모세선교회의 헌신찬양은 '행군 나팔소리 들으며'를 힘차게 찬양했다.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 정진규 집사 -

S: 지난번 교회 본당 스피커 설치를 위해 본당 천장까지 올라 가시는 것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J: 옛날에 해군 시절에 경험으로 겁은 없어요. 그런거는 자신있게 하니깐요. 옛날같진 않지만요...

S: 이번에는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를 해 주세요.

J: 처음 와서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사순절에 매달렸죠. 94년 사순절로 기억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S: 가족들이 사순절 개근하셨나요?

J: 가족 개근은 애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제법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가족이 가장 오래 개근한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일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권사와 십일조 생활은 확실하게 하고, 교회 행사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항상 주님이 원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S: 교회에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J: 눈 많이 왔을 때죠.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6인치 왔는데 그 때는 눈 치우는 차도 없었어요. 눈치우는 기계로 교회 주위를 다 치웠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온 몸이 쑥실 정도로 며칠을 치웠으니까요.

S: 교인들이 같이 샅으로 치웠겠네요..

J: 그 때는 청년들이 잘 모였어요. 눈만 오면 청년들이 교회 치워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눈을 치우면서 주차장 한 가운데 있는 몇군데 맨홀에 쓸어 넣으면 눈이 안에서 물에 녹았기에 많이 밀어 넣었죠.

S: 교회 교육관 공사에 대한 기억도 있으세요?

J: 제가 미국 왔을 때, 저의 처남이 “미국 생활은 쓸 수 있는 날이 없을테니까 일단 잘 쉬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쉬니까 몸살이 나는거예요. 그 때 교회에서는 교육관 공사가 한창이었고 주일 광고 시간에 “교육관 페인트 칠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는 광고를 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페인트 창고 지기였고, 큰 배 도색작업, 글자 마킹 하는 것, 배 선수에서 줄타고 내려가서 글자 새기는 것등의 경험이 있었어요. 자신도 있었구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일주일 동안 페인트를 훌쩍 뒤집어 써가며 머신으로 칠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하는 것을 보고 페인트 책임자가 저를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더 이상은 봉사를 못시키겠고 Pay를 할테니까 일을 도와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교육관 일이 끝나자, 그 다음엔 목수가 저하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보수도 올려받고 목수 일을 했어요. 그 때 실링, 바닥타일, 벽 세우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전기 기능공으로 중동에서 1년 일했었는데, 여기서 페인트 일에 목수 일을 배운거예요. 목수일도 끝나자

우리 교회 구석 구석을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구석 구석에 이분의 손 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이른 새벽부터 다음 날 신학교 철야기도회로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까지, 교회 문 단속을 하시느라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눈이 오면 트럭을 몰고 교회 주차장 눈을 밀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교회 본당의 무대 설치까지 똑딱 해치우시는 우리 교회의 만능 해결사, 정진규 집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S: 먼저 집사님 가족 소개를 해 주세요.

J: 가족은 저와 이쁜 정희정 권사와 남매가 있는데, 아들 원호는 결혼해서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딸 지순이는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S: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J: 교회의 시설 관리인데, 보수, 각 부서에서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 주는 일이지요. 세세하게는 고장난 것 수리, 긴급한 수리, 환경미화에 관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소모용품 구입, 교회 알람, 교회 단속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S: 우리 교회 등록은 언제 하셨고 교회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J: 저는 92년 7월에 뉴욕에 왔는데 토요일이었어요. 다음 날 주일에 권장에 등록하고 지금껏 하루도 안빠지고 권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94년부터 3년 동안 ‘영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리하는 일을 했었고, 교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 ‘그린 하우스’라고 유리에 관한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먼저 교회 관리하시던 분의 건강상 이유로 교회 관리직 일을 더 못하게 되자, 교회에서 장목사님으로부터 교회 관리직을 맡아 달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 거절을 하다가 장목사님의 간절한 권유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실 때마다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도 했었지만, 교회에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필요하다 하시기에 교회에 계속 있게 되었어요. 일단 주문이 들어 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조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장 가족입니다.”

예배 드리고 떠난 자리, 친교를 마치고 돌아간 지하 친교실,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를 마친 후 교육관... 교우들이 자리를 떠난 후 정리하고 청소하며 교회를 항상 깨끗하게 빛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알고, 그들이 섬기는 일도 알지만 그들과 인사를 나눈 적은 있으신가요? 세 명의 권장 가족을 소개합니다.



Tino (티노)

안녕하세요. 저는 권장로교회에 2010년 친구의 소개로 오게되었습니다. 벌써 7년째 일하게 되었네요.

처음 권장로교회에 왔을 때 큰 예배당을 보고 가장 놀랐습니다. 또, 놀랐던 한가지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큰소리로 통성기도

하는것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권장로교회에 적응하여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몇년동안 일하면서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시탕을 나누어 먹으며 친하게 놀곤했습니다.

저에겐 딸이 있는데, 이름은 Shen (셴)입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함께 살면서 QPEM에 다니며, 권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Larry (라리)

안녕하세요. 저는 티노의 소개로 권장로교회에 온 라리입니다. 2013년부터 일 주일에 이틀정도 오다가, 2016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후부터는 매일 교회에 나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때 권장로교회에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딸 Jessica (제시카)와 Justin (저스틴)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제목은 아이들이 권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Mus (무스)

제 이름은 무스입니다. 한국 직업소개소를 통해 권장로교회로 오게 되어 2015년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티노의 일을 도우며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좋습니다. 약간의 한국어도 배워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면 간단한 대답은 할수있습니다. 일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베델 건설에서 직영으로 일을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과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가끔 봐드리고 했습니다. 94년에 유리 일을 하는 ‘그린 하우스’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 출장도 가게 되고, 보수도 좋아지고, 보너스도 잘 나오고 상황이 좋아질 무렵에, 교회에서 일해달라는 장목사님의 구애가 있었습니다. 보수를 생각했으면 교회에 못왔죠.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노목사님의 간절한 구애에 거절을 못하겠다 생각하고 4일 후 토요일에 목사님을 찾아 뵙고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때 장목사님의 표정이 ‘내 고민거리는 끝났다’ 하시며 즐겁게 말씀 준비하시러 서재로 들어 가시는 모습 보고 제 마음도 기쁘고 좋았죠.

S: 만약 시설관리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부서 중에서 일하고 싶은 부서가 있으세요?

J: 교사로서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고, 고치고, 손재주로 할 수 있는 일들, 끊임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있다가 집에 가는 시간이 빠르면 밤 10시 늦으면 새벽까지 있는데 그 시간에도 나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나씩이라도 고치고, 잘못된 것 바꾸고 있어요. 그런게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 놓으면 맘에 안들어서 다시 내가 손대고 해요. 남의 집에 가도 이집에 이게 잘못됐네, 이거 얼마만 들어가면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저거 손대면 좋겠다. 이런 것만 보여요.

S: 다른 봉사 생각해 보려다가 결국 다시 지금 하시는 일로 돌아갔네요. 이 시설 관리부를 못 떠나시겠어요.

S: 시설관리부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J: 제가 교회 오래 있으면서 혼자 여러부서를 상대하니깐 그분들의 만족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힘닿는대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섭섭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부터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럴만한 형편밖에 안되는 것은 못해 드리기도 해서 미안한 감이 있고, 교회 20년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만큼 못한 것도 있다고 저울질 되듯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은퇴, 복음, 소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소중했던 순간들...

그리고 교인들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재물에 관해서는 마음을 비운 지가 오래 됐고,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죽는 날까지 사는 거죠. 요즘은 은퇴도 가까와 오는데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허리도 아프고... 은퇴를 해서 몸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예요. 바벨 때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12- 20시간까지 있었어요. 오래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복받으려고, 내가 못받으면 자녀라도 복 받게 하려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서포트 잘해주는 내 와이프! 음으로 양으로 먹는 거 잘 챙겨주고, 누가 부담스러운 것 주문하면 중간에서 잘 컷트해 주고, 쉬는 날이면 전화 받아서 끊어 줘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어요. 와이프와 행복했던 순간은 수 없이 많죠. 특히 목회자 세미나 때 이곳 저곳 큰 부담없이 목사님 모시고 여행다니면서 은혜스러웠고, 목회자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좋았고, 권장로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고, 권장로교회 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것, 담임목사님께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제자 훈련 참석 못하는 것이 제일 죄송하지만, 이번 공사로 더 신경 써서 잘 마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 얘기 하니 눈물이 핑 도네요.

“ 부활의 감격을 함께 찬양합니다 ”

- 호산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연습 스케치 -



올해의 부활절 칸타타는 2부 호산나 찬양대의 순서이다. 퀸즈 장로교회에는 4개의 찬양대가 있어서 매 4년에 한번씩 교회의 찬양대를 대표하여 한 찬양대가 곡을 준비하고 모든 일정을 책임진다.

올해의 찬양곡은 기적이다. 호산나 찬양대원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찬양대에서 지원하는 여러 대원들이 함께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2월 부터 시작한 연습은 매주일 저녁예배가 끝난 후에 이어지고 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연습하는 동안 매주일 나머지 3개의 찬양대는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퀸즈 장로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반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하심의 가슴 벅찬 과정을 대원들의 찬양을 통해 그려 나가는 준비 과정에서 대원들의 진지한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기때 새벽부터 여러 부서에서 시작한 주일 예배와 섬김의 자리는 저녁 예배후의 부활절 찬양 연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의 죽으심을 알기에 기꺼이 남아 지휘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조성순 집사

리스도의 부활 하심을 찬양 할 것임이기때 찬양 대원으로서 마땅히 결연한 자세로 연습에 임하는 모습이였다. 파트별로 흠어져 연습을 하기도 하고 한자리에 모두 모여 연습된 곡을 맞추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완성된 곡의 연주에서 전해질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연습이 마무리 되어 갈 즈음 풍겨오는 음식 냄새는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연습 종료는 광고와 식사 기도로 마무리되고 친교실에 정성스럽게 마련된 식사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찬양 대원들의 얼굴은 환하기만 하다. 나머지 설거지로 모든 일정은 끝났고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전해질 감동과 감사를 생각하는 대원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대원들의 절제된 조화와 부족하지만 연습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어우러짐의 소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곡조있는 기도인 것이다.

2017년 호산나 찬양대를 비롯한 퀸즈 장로교회의 모든 찬양대원들의 헌신과 섬김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만방에 울려 퍼질 것이다.



부활을 향한 3일간의 간절한 기다림

- 기적을 지휘하는 최진식 전도사 -

올해 부활절 칸타타를 책임지고 지휘하게 되었고 얼마전 목사 후보고시에 통과한 최진식 전도사를 인터뷰 하였다.

이번 부활절 칸타타 곡으로 'The Miracle(기적)'을 택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기도하며 부활절 칸타타를 찾던 중 그의 심장을 뛰게하며 눈에 확 들어 오는 곡 기적을 발견 하였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하시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기적이요. 우리를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심도 기적 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삼일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 나심이 기적이라는 감동을 주었기에 선곡을 하였다고 한다.

그가 소개하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삶 그 자체이고 그들의 찬양이라고 한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십자가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깊은 무력감과 상실감, 그분을 한번 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3일간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앞에서 온 몸과 마음으로 전율한 승리의 기쁨의 찬양이라고 한다.

퀸즈 장로교회와 담임 목사의 사역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며, 칸타타를 준비하는 모든 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인터뷰는 마무리 되었다.



“ 지식과 지혜가 숨쉬는 보배로운 공간 ”

지하 엘리베이터 옆쪽 코너 조용한 곳에 자리잡은 '요셉 도서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와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귀한 곳

정혜경 권사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가치 있고 유익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그 유익과 특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설치된 귀하고 보배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여 지나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지하 엘리베이터 옆쪽 코너 조용한 곳에 자리잡은 '요셉 도서관'이다.

● 설립 목적과 개관

이 도서관은 원로 장영춘 목사의 영문 성함인 Joseph을 따서 '요셉도서관'이라 칭했으며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가 개강된 이후 신학생들의 학습자료와 영성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장목사님께서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고 또한 Shelton College(RCC)도서관으로부터 다량의 장서들을 기증받아 1999년 2월 28일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주일 예배 때 장영춘 목사님 성역 40주년 기념예배, 요셉도서관 개관 예배도 함께 드림으로서 정식으로 개관되었다.

이 도서관에는 약 6만여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주로 신학

서적이며, 한글로 된 책이 만 여권이고 그 외에 영어, 불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러시아어로 된 책들이 있다. 또한 1년에 60여권의 신간 서적을 3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있다. 앞으로 다민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언어로 된 서적들을 비치할 계획이다.

● 이용 방법

이 도서관은 우리 교회 등록 교인과 동부개혁장로회 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3주이고 1번 갱신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수, 목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주말: 오전 11시 - 오후 4시 이다. (토요일은 휴무)

● 사서 소개

이 요셉도서관이 개관된 후 한환복집사, 이승재집사, 김현정집사 등이 사서로 근무했으며, 2013년 1월부터 조제인집사가 사서로 수고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김경구권사와 최효진권사가 주말에는 자원하여 도서관을 찾는 교우들을 섬기고 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와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장서들이 비치된 이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여 그 책 속에 묻혀진 무궁 무진한 지혜도 터득하고 마음의 여유도 즐기며, 믿음과 영성이 더욱 향상되어 기쁨과 감사 속에 이웃과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학생들의 학업에 힘과 도움이 되는 공간

- 조제인 집사 미니 인터뷰 -

정 : 안녕하세요 조집사님, 늘 웃는 얼굴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족 소개와 우리 교회에 언제 등록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 : 제가 캐나다에 살던 중 1995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고,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결혼해서 뉴질랜드에서 부부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작은 딸은 미국 서부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0년 7월에 등록했으며, 현재 임마누엘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 : 도서관에서 섬기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조 : 제가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기독교교육학과)재학중 마지막 학기인 2013년 1월에 신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원해서서 서명하고 처음에는 몇사람이 함께 돕다가 다 그만두고 저만 혼자 끝까지 남아서 여기 저기 수북히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치운게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지요. 그 때가 시험 때인데 시험공부는 미뤄두고 도서관 정리에 더 힘을 쏟았어요.

정 : 아, 그러셨군요. 이 도서관에 계시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감사

함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 :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신학생들의 학업에 힘과 도움이 되어 기뻐요. 또 잘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니 본교회 교인들이 주일에 많이 찾아와 이용하셔서 참 좋습니다.

정 :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조 : 간혹 대출해간 책을 더럽히거나 파손된 상태로 아무말 없이 반납하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알려주시고, 또 분실할 경우 도내이션을 해주시면 그 기금으로 어려운 신학생들의 도서 구입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가능하면 대출해간 책은 제 날짜에 반납해주시면(갱신도 가능하니)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 : 오늘 시간내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늘 기쁨으로 귀한 사역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비전의 열정이 더 뜨거워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2017년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3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양순관에서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예배 전 양순관 친교실에서는 해외선교위원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식사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식사기도 후 진행되었고, 이후 진행된 예배에서는 해외선교위원장 정길표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선교국장 전성호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송요한 선교사가 “선교의 방향”(고전9:19-27)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방향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 다른사람들을 섬기는 것,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처럼,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역시 가는 선교지의 언어, 문화, 생활을 배워 나가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비로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작년에 있었던 단기선교를 담은 영상이 이어졌고, 광고 후 앞으로의 진행될 단기선교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520장 찬송을 부른 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 양순관 친교실에서는 각 선교지별로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작년보다 더 많은 관심 속에 선교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이러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불붙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단기선교에 대해 궁금하거나 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외선교위원회 정길표 장로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2017년도 단기선교는 카자흐스탄(6월 15일~6월 23일)을 필두로 총 9개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7년 단기선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숙규 집사]

2017년 단기선교 일정

No.	사역지	기간	예상인원	사역내용	말씀사역자
1	카자흐스탄	6/15 - 6/23	6	목회자세미나, 전도폭발, 제자훈련	송요한 선교사
2	니카라과	7/8 - 7/15	10	VBS, 미용, 의료, 일대일전도, 네일아트	이양미 전도사
3	캄보디아	7/12 - 7/21	17	전도세미나, VBS, 미용, 네일아트, 기술사역	강지영 전도사
4	중국	7/13 - 7/25	12	말씀집회, 목회자세미나, 전도폭발, 미용, 네일	첸위지, 황혜수, 차평화 전도사
5	온두라스	7/15 - 7/22	10	VBS, 의료, 일대일전도, 미용, 네일아트	고부영 전도사
6	인디언보호구역	7/21 - 7/29	12	VBS, 의료, 일대일전도, 미용, 네일아트	
7	인디아	7/28 - 8/7	16	전도폭발, VBS, 고아원사역, 네일아트	김도현 목사
8	에티오피아	8/8 - 8/19	12	교사강습회, 목회자세미나, 말씀집회, 어린이전도집회, 일대일전도	진기웅 전도사
9	할렘	8/26	50	일대일전도, 찬양집회, 말씀집회	오인수 목사, 계화자, 최진식 전도사
	TOTAL		145		

2017년의 단기선교 설명회가 3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예배 전 양순관 친교실에서는 해외선교위원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식사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식사기도 후 진행되었고, 이후 진행된 예배에서는 해외선교위원장 정길표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선교국장 전성호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송요한 선교사가 “선교의 방향”(고전9:19-27)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방향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 다른사람들을 섬기는 것,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처럼,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역시 가는 선교지의 언어, 문화, 생활을 배워 나가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비로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작년에 있었던 단기선교를 담은 영상이 이어졌고, 광고 후 앞으로의 진행될 단기선교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520장 찬송을 부른 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 양순관 친교실에서는 각 선교지별로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작년보다 더 많은 관심 속에 선교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이러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불붙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017년의 단기선교 설명회가 3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예배 전 양순관 친교실에서는 해외선교위원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식사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식사기도 후 진행되었고, 이후 진행된 예배에서는 해외선교위원장 정길표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선교국장 전성호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2017년의 단기선교 설명회가 3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예배 전 양순관 친교실에서는 해외선교위원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식사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식사기도 후 진행되었고, 이후 진행된 예배에서는 해외선교위원장 정길표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선교국장 전성호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황현희 자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14)

W·E·L·C·O·M·E
2017년 2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Chinese Ministry



새가족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



서규일 권사님의 맛있는 토란국 끓이기

찬양대의 칸타타 연습이 있을 때면 한번쯤 맛있게 되는,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서규일 권사님의 대표 요리 '토란국'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1. 토란은 껍질을 벗겨 찬 물에 담근다음 먹기좋게 도톰하게 썰어놓는다.
2. 멸치,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을 넣고 육수를 만들어 놓는다.
3. 소고기는 차돌배기로 준비해서 먹기좋게 썰어서 국간장, 후추, 참기름, 마늘을 넣어 재워 두었다가 볶아놓는다.
4. 무우는 조그맣게 납작하게 썰어 조금만 준비한다.
5. 양파는 채썰어 놓고 다진마늘, 파를 준비한다.
6. 준비한 육수에 무우를 먼저 넣고 끓인후 토란, 양파, 마늘, 볶은고기를 넣고 끓인다.
7. 국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 다음 파를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 마무리한 후에 불을 끈다.



서규일 권사님